



水公 4대강 사업 문서 파기 의혹... 시민단체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박범계 의원 SNS 통해 폭로에 국토부 조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탄진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모두 3.8톤 규모의 4대강 관련 문서들이 파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8일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제 시각 국가기록원에서 공무원들이 나와 반출된

문서를 봉인했다”며 “노준호 정책실장 등 더불어민주당 대전 시장 당직자들이 현장에 긴급출동해 문서를 실은 트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18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2009-2010년 MB정부 4대강, 보, 아라뱃길 관련 문서들을 수자원공사 세 군데에서 1톤 트럭 4차를 배정해 반출 파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보됐다”며 “용역 직원들만 9

명 정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박범계 의원의 소셜 미디어를 인용한 보도가 이어지자 “1997년 이후 모든 문서를 전자 문서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어 무단 폐기는 없었고, 4대강(사업)의 경우 사업 관련 문서 등 주요 자료는 연구보전 중”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 관련 문서가 3.8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자료를 포함해 폐기하려던 문서의 총량이 3.8이라는 내용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자원공사의 해명에도 김현미 장관 지시로 18일 긴급 감사반을 구성해 수자원공사로 내려 보냈고, “문서 파기 작업을 즉각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다음 날 25.트럭에 실려온 문서 더미에서 ‘넓은 의미의 4대강 사업 관련 문서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문서’ 총 12박스 분량을 찾아냈다. 국가기록원은 19일 이 12박스 분량 문서 중 2박스 분량 문서에 대해선 전산 기록과 대조 등 분석 작업을 마쳤고,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나머지 문서에 대해서도 분석을 끝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문서 중에서 전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미확인 문서나 결재 사인이 있는 등 외형상 원본으로 보이는 문서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이선용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수자원공사 4대강 관련 자료 대량폐기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인 18일 한국수자원공사의 대량 문서 파기 사건이 발생했다. ‘면서’ 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는 어떤 경로로 폐기결정이 되었는지, 또한 폐기된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9일 오전 회수된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기록원은 문서를 철저히 분류하

여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면서’ 이번 문서폐기사건에 4대강 사업 관련 고의적 은폐 정황이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하 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자료를 파기하는 수자원공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1월 17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문을 보면 ‘퇴임 후 4대강 살리기, 자원외교 등 수사가 진행됐지만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비리 권력형 비리가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제 책임 중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고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물어라’라고 말했다. ‘면서’ ‘수공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자마자 그 다음날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를 파기하려 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파기를 중단시키고 감사에 착수했다. 수공은 조직개편에 따라 참고용 사본자료를 파기하는 것이며 4대강 자료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기문서 중 원본문서가 들어있거나 보전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과 국토부에게 수공의 문서파기에 대해 철저히 주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은폐의 의혹이 있다면 문서 파기에 대한 책임자를 색출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4대강 사업 재조사 역시 박차를 가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8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람중심 경제’ 구현에 중앙·지방 힘 모은다

행안부, 올해 세종서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적인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행안부장관 주재로 올해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엄중한 선거준비와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성공적 안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소득 여건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올해 경제정책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 집행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과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혁신 성장, 영세 소상공인 보호 강화 등 중앙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선순환적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이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 대덕특구 개보수, ‘4차 산업 혁명특별시’ 육성, 지방행정혁신 4.0을 제시했고 충남도는 2030년 충남경제미래상 구현 내실화, 세계적 강소기업 유치, 수출시장 다변화 등 일자리 창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내놨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별별 실정에 맞게 관계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선거준비 훼손 방지 등을 위한 행안부-지자체 합동 감찰 실시 협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난관리자원이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가 자원 부족 지자체를 지원하는 ‘재난관리지원 공동활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오늘 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경제방향 함께 논의하고 상생협력하기로 한 중요한 자리”라며 “2018년은 민선 7기가 출범하는 해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아 공명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 개선

대전광역시 최근 서울의 한 공동주택 경비원 집단해고 등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경비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선정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 대상 선

정기준에 경비원 고용 안정화 우수단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지난 16일과 18일 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선정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은 자치구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등이 다.

이영호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북한 선수단 3개 종목 22명

女 아이스하키만 12명 · 임원 24명까지 총 46명 규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은 3개 종목 선수 22명과 임원 24명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일(한국시각)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에서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회의 열었다.

이날 회의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구닐라 린드버그 평창 동계올림픽 조정위원장 등 IOC 관계자를 비롯해 남과 북, 평창 조직위까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직접 연관된 4개 단체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장, 유승민 IOC 선수위원 등 8명이, 북한은 장웅 IOC 위원 등 4명이 자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 결과 IOC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 22명을 포함한 총 46명의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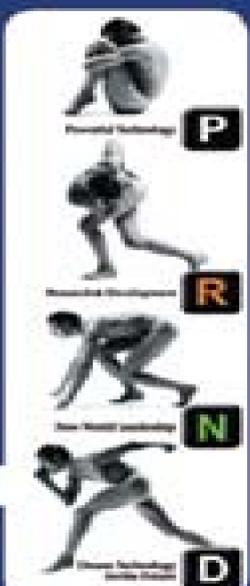
참가 종목은 여자 아이스하키를 포함해 3개로 세부 종목은 총 5개다. 단일팀 구성이 확정된 여자 아이스하키에서만 북한 선수 12명이 올림픽에 나선다.

예상보다 많은 12명의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참가하며 남북 단일팀은 한국 선수 23명까지 총 3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출전 선수는 다른 팀과 같은 22명으로 제한되며 새라 머리 한국 감독이 단일팀을 이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유니폼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부착하며 국가 역시 두 나라 국가 대신 아리랑이 사용된다.

김태선 기자

HYUNDAI
POWERTECH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왔습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된다는 사실은으로도, 자동차의 안전과 통행에 대한 신뢰를 받고, 더욱이 행복의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한 자동차 생활을 향유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의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HYUNDAI
POWERTECH

민주당46% > 한국당9% - 바른정당8% - 국민의당 · 정의당4%

[한국갤럽] 文대통령 직무지지도 67%... 전주대비 6%p ↓

한국갤럽이 1월 셋째 주(16~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긍정평가) 조사결과 전주 대비 6%p포인트가 하락한 67%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동안 70%대를 유지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60%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 결과, 67%가 긍정 평가했고 24%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부정평가 비율은 지난주보다 7%p포인트가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5%/17%, 30대 82%/11%, 40대 75%/19%, 50대 63%/30%, 60대 + 50%/37%다.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지지

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3%,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47%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25%·41%)보다 부정률(68%·51%)이 높았다. 이번 주 지지율 하락과 부정평가를 상승시키는 이념성향 보수층,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권과 서울·수도권, 연령별로는 50대 이상보다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74명, 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능력(17%), 개혁/적폐 청산(14%),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대북 정책(안보)(6%), 외교 잘함(전반적으로 잘한다)(전 정권보다 낫다)(외국인임인상(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240명, 자유응답) 과거사 들춰/보복 정치(21%),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북핵/안보'(8%), 최저임금 인상(7%), '전북 성향, 과도한 복지(이상 6%), '독단적/일방적/편파적', '행정유희/남북 단일팀 구성(보여주기식 정치(이상 5%)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9%, 바른정당 8%,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4%, 없음/의견유보 28%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자유한국당은 2%p포인트, 정의당은 1%p포인트 하락했고 바른정당은 2%p포인트 상승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변함이 없었다.

지난 14일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16일 박인숙 의원의 추가 탈당으로 바른정당 의석은 한 자릿수로 줄었다. 이러한 양당 내 반발 속에서

18일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공동으로 통합을 선언하고 가장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지지도는 2주 연속 창당 이래 최저치, 바른정당은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당은 통합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각각 창당 준비 중인 반면, 바른정당은 과거 몇 차례 탈당 러시 후에도 당 지지도는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 신뢰수준이 95%이며 응답률은 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정환기자

세종시의회 행복위·산건위, 2018 주요 업무보고

제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조례안(9건), 동의안(1건)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고준일) 제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철)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9건), 동의안(1건)을 심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방·경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준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으로, 심사한 조례 중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진흥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남세자보호금 여 및 수당 관련 조항을 수정가결 하였다.

또,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제출한 홍민표현, 의회사무처장 후보자로 원안가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된 안건은 1월 24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도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안찬영 위원장은 공공시설물 인수추진 과정의 체계 확립을 위해, 분야별 공정에 따른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시설 인수 후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따른 사후 시설 개선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검 및 인수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세종=이정복기자

양승조 의원,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부회장과 면담

한국 제약시장 투자 따른 현황 및 관련 제도 정비등 의견 교환



지난 4일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국회의원(천안 병,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부회장 제임스 파더리(James Fathery)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사절단에 함께 한 제이미 케벨리(Jamie Kebel) 미일 재계회의 대표, 크리스 커즈믹(Chris Kuzmuk) 미국 제약협회 부사장 등 제약/의료기기 주요 임원

들이 함께했다. 면담에서는 세계 보건의료산업 현황, 보건산업분야 한미FTA의 이행 점검, 한국 제약시장 투자에 따른 현황 및 관련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양승조 의원은 "충남도지사 출마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충남도의 미래 먹거리를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 등 보건의료산업의 기업유치 및 투자 등에서 찾겠다"고 밝히며 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통해 국내 기업과 상생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제임스 파더리 부회장은 "출마 소식이 사전에 들었다.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며 덕담을 전한 뒤 충청남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미국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양승조 의원은 한미 FTA의 재협상에 대해 "보건복지분야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아직도 비싼 약값 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많다"며 외국 제약기업의 환자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금산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2018년 업무계획보고

금산군의회(의장 이상헌)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써 ▲2018년 업무계획보고 ▲금산군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분야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아직도 비싼 약값 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많다"며 외국 제약기업의 환자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안필용 의원 '대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 발의

따뜻하고 행복한 환경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서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생활악취로 인해 고통 받는 많은 주민들의 요구와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관리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필용 의원은 "본 조례안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과 같이 작은일에도 고 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을 살피는 섬세한 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안」은 19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악취 민원발생시 배출실태조사를 하고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정환기자

"전면 금지식 가상화폐 규제는 시장과 기술 발전 저해할 수 있어"

신용현 의원, 가상화폐 시장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 논의하는 자리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이 반발하는 국민 정원이 20만 명을 넘어 서며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되었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당 김관영·신용현·오세정·채이배 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대진 유성을

지역위원장·사진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비이성적 투기판으로 변질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전면금지 식의 과도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트렌드인 블록체인, 가상화폐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이자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주축, IoT, 금융거래에 있어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정부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하되 블록체인 발전은 장려하겠다고 했지만 기반기술과 그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을 분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당국의 기술과 시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사실 그 동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가 부족했다"며 "이번 토론회에 전문가, 정부부처, 학계 등이 함께 모인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맡았고, 토론에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신팀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참여했다. 이정복기자

충남선관위, 제7회 동시지방선거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

16개 시·군·구위원회 국·과장 참석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16개 시·군·구위원회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가 지향하는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법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대책을 중점 논의 하였다.

충청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로 삼고,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이번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선거를 통한 행복한 우리 충남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본영 천안시장, 두 번째 출판기념회 성황리 마쳐

'천인을 가꾸는 아름다운 사람들' 17명의 성공스토리 담아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체육관에서 정관계 인사와 지지자 등 5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 출판기념회 및 북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출판기념회는 1부 '의식행사'와 2부 '북 콘서트'로 열렸으며, 1부는 단국대 초대 테라모닉스 과학의장 최하영과 천안시민 축하공연이 이어져 시작됐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의 축하영상 메시지와 양승조 국회의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아산시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 지역의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구시장의 어깨에 힘을 실어줬다.

2부 '북 콘서트'는 저서인 '천인을 가꾸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속 주인공 17명이 직접 출연해 구 시장과 '아름다운 사람들' 저자 그리고 시민들과의 대화'를 주제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참석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구 시장의 두 번째 저서인 '천인을 가꾸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구 시장이 천안시장 재임 기간 만 17명의 시민과 전문가들의 성공적인 삶의 애환과 성공스토리를 감성과 재치로 담았다.

저서는 ▲충남교육계의 산증인 천안향교 상고회 민병달 회장 ▲서예가 최덕현 인연선 선생 ▲천안시 공공체육장 조성사업에 공헌한 천안 전동중 연구소 김근용 대표 ▲천안의 유명제과점인 푸주푸과자점 윤석호 대표 ▲천안의 대표

작인 향토사학자 임명순 선생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수연 명창 ▲불교미술의 거목 김부길 노인 스님 ▲서도소리 전승자 성계선 명창 ▲떡간공예의 명인 유운숙 작가 ▲천안이 배출한 세계적인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삼대째 명면집 신태호·이희숙 부부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가위손 이용장 박흥배 명장 ▲'삼대째 기름집' 현원근 대표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장 목골지장철공예 소귀본 작가 등 천안을 빛낸 예술가, 명장, 명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구본영 시장은 "천인을 가꾸는 아름다운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를 펴낸 후 지난 4년 동안 그분들이 천한 감동과 지혜를 교훈 삼아 지역 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에 담긴 열일곱 명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교훈을 얻길 바라며, 천안 시민 모두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구 시장은 오는 6월 13일에 열리는 지방선거에 천안시장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기세를 몰아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이홍호기자

국회대표단, 홍콩 黨政 수반 모두 만나

한국-홍콩 협력체제 구축 '일대일로+남방정책' 결합 추진

홍콩을 방문 중인 국회대표단이 18일, 캐리람 홍콩 행정수반(행정최고책임자), 앤드류링 홍콩 입법회의 의장(국회의장 격), 병준잉 정협 부주석 등 홍콩의 주요 요인을 만나 양국 간의 협력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홍콩 현지를 방문 중인 국회대표단(단장 박병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병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펴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

책과 문재인 정부가 '변영의 축'으로 설정한 남방정책이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중국, 홍콩과의 경제협력 지평도 넓어질 것 이란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홍콩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을 이어 주는 가교역할을 해온 만큼 홍콩입법회의(국회격)와 한국 국회의간의 협력체제를 구축 하겠다"며 "한-홍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 이어 캐리람 행정수반, 정협주석과 만난 자리에서는 "양국 정부는 물론 정당간의 협력방안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대표단은 이날 홍콩 방문을 끝으로 4박5일간의 베이징, 광저우, 홍콩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밤 귀국할 예정이다.

광고문의
(042)538-3030

“시민들과 소통·친화력으로 지역 현안 해결 앞장”

최선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초선의원이지만 누구보다도 대전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온 대전광역시의회 최선희 <비례대표·자유한국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역민의 민원이 접수되면 항상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 의정에 반영해왔다. 이에 대전투데이는 최근 섬세하고 꼼꼼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는 최선희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지난 3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는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부여해준 권한은 숲속의 피톤치드 같은 역할을 하라는 명명으로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위해 개인의 인성을 잠시 내려놓고 모두의 행복의 발을 입구기 위해 생각하고, 연구하며, 실천해온 지난 3년,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는 기쁨이 있는 곳보다, 어렵고 힘든 곳에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게 저의 신념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그 중심에 있었고, 해결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감사는 정치인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줬으며, 벽찬 회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역량을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만 시간의 제한으로 시민모두의 고민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쉽게 다가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임기동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은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섰고, 특히 현장 의정에 힘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난 시간 동안 성과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습니다(조례안 16건, 결의안 2건, 시정질문 3회, 5분발언 4회, 토론회 2회) 생각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전은 현재 선진 교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담당하게 될 충청권광역철도 건설입니다. 충청권광역철도 역사 중 오정역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정역 신설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여 현재 오정역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이 미래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인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거 규정 미비로 언제 사라지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지원을 명문화 하여 항구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업체 수주확대와 하도급 적극 추진, 유아기 원아 급식지원 촉구, 우리지역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제정, 우리지역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대전 농산물의 인증마크 도입,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맨홀 불량 덮개 정비조치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전지역 현안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대전시민의 가장 큰 이슈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의 지속 여부가 아닌가 합니다. 전 시장의 중도 낙마에 따라 일부에서는 트램건설에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논란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신속한 추진, 지속적인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장기미집행 공원의 민간특례사업입니다. 대전시 장기미집행 공원은 26곳이 있습니다. 이 중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월평공원을 비롯한 8개 공원입니다. 2020년 6월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내 주택건설을 허용하는 특례사업의 경우 환경보존의 어려움, 원도심 활성화 역행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사안이 전국적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비확보가 어렵다면, 일몰제 연장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셋째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입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에 따른 방동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행정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격상 지역주민과 사전 의견수렴이 어려웠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입니다만 정도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과 대화를 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의 이주대책, 보상문제 등의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 대전의료원 건립 등 현안 사항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심점인 선장이 없

는게 대전시의 불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치인이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유아교육을 위해 평생을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만남요청이 왔고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정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처음에 생소했던 정치가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쁨, 가져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정치는 나를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를 위한 봉사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 마음은 지금도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의원님은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지요.

의원이 가져야 할 덕목 중 가장 큰 항목 중 하나가 주민과 소통하는 능력, 친화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다른 친화력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찾고는 합니다.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되고는 합니다. 삶의 현장을 시각화 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생동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직능단체 모임에도 자주 발걸음을 하고는 합니다.그러다 보면 각자의 추구하는 사항들을 발견하게 되고,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고는 합니다.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교육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투자대비 효과가 가장 큰 교육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전시 유아교육 환경이 미흡합니다. 그 중 하나가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낮은 수준의 급여로 보고 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라는 신념에 지속적으로 교육감과 협의, 관계공무원과의 소통을 통해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전국 최초로 교사들에게 명절휴가비로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공립유치원 교사 와 비슷한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수당, 교직수당의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요건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요.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원자체가 국가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원자체를 조정하여 지방으로 이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사무의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사무도 국가사무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의원의 정책보좌관제입니다. 대전시 7대 의회는 어느 의회보다 많은 입법활동을 했으며,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의 검토,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력을 할 수 있는 보좌관이 없습니다. 신속히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필요합니다. 인사권을 갖지 못하고는 어느 기관이나 자립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시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흔적을 남겼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 못다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차분히 지역현안에 대한 깊은 고찰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전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다르게 생활속에 나타나는 현안해결,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심으로 그렇게 하기위해 노력해 왔고 남은 기간도 대전시민의 고민해결과 부자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심이 전해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보시게 된다면 다가오는 6. 13. 지방선거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는 삶의 일부가 되었고,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자유로운 호흡과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드릴 말씀은.

안녕하세요. 최선희 의원입니다. 시의원으로서 활동한 시간이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쩔지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여러분의 허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행복의 동행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한사람의 힘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힘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전국 최고의 꿈의 도시, 대전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모두가 빛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응원과 격려를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이 낮은 곳에서 여러분의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서산 대신항 국제여객선 상반기 취항 한다

제25차 한중해운회담 결과 서산-릉청항로 투입선박 선정 기준 합의



한중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지역 최대현안 사항인 서산-릉청(榮淸)항로 국제여객선이 올해 상반기내 취항이 순

조로울 전망이다.
 서산시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쿤밍(昆明)에서 개최된 제25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서산-릉청항로를 비롯한 한중항로 현안들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부는 서산-릉청항로 투입 선박의 선정 범위 확대 등의 기준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 사드 보복의 빛장이 풀려, 국제여객선 취항 준비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와 사업자는 앞으로 투입선박 확보 및 해양수산부 운항면허 취득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국제여객선을 취항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사드보복 여파로 서산-릉청항로 국제여객선 취항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으나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국제여객선 취항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청권 최초의 국제여객선이 조속히 취항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 김정환기자



청양군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진단·장애등급을 받은 진폐환자와 배우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남양면의 금광이나 인근 보령시 탄광에서 일했던 경력을 가진 주민들 중 근로환경 노출 후유증으로 진단을 받고 있는 보건의료원 등록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진료 관련 질환자여부의 진단은 보령아산병원을 이용하면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진단 및 등급을 받은 후 관련 질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연간 4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상병은 순환기계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근골격계통 등이다.
 한편 군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환자 20명, 배우자 25명에게 총 1237만원을 지원했다. 관련 문의는 청양군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040-4540)으로 하면 된다.
 청양=정성범기자



선문대 청년창업 위한 중국과 산학 협력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가 베트남, 프랑스 등에 이어 8번째로 중국에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사무소를 열었다.
 LINC+사업단은 18일 초환성 청두에 위치한 (주)양류혁신창업기업서비스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또, 청두시 금융투자공사와 창업교육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재학생의 글로벌 창업교육 △해외 창업지원 △공동출자지리 창출 △창업 컨퍼런스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사무소를 거점삼아 청년창업을 이끔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선문대 창업교육센터는 청두정보과학대학 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창업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공산당 청년리더 청두지부도 한국대학과 청두현시대학의 창업협약 체결을 희망했다.
 윤기용 선문대 LINC+사업단장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중국에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사무소를 세우게 돼 기쁘다"며 "글로벌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문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베트남 글로벌산학협력거점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비즈니스 미팅과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는 등 산학협력 국제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 한 번 방문으로 OK

집중 접수기간 읍·면·동사무소 신청하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해령, 이하 충남농관원)은 다음달 1일부터 4월2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신청서를 농지소재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서 일체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과 대전·충남·세종 합동으로 1일부터 4월2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읍·면·동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마을별 집중 접수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농업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신청서 작성 등을 적극 도와준다.
 따라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농업인 또는 기존 경영정보가 변경되어 수정이 필요한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관할 농관원을 방문해 통합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한편, 변경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등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전국 어디서나 1644-8778번으로 전화하면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송병대기자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진우)이 지난 17일, 대학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등록했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는 정부의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할 핵심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다. 액셀러레이터는 주로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업모델 개발, 기술·제품개발 지원 등 전문 보육을 아우르는 기관을 정하며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등록됐다.
 이진우 단장은 "대학 최초의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기점으로 호서대학교의 벤처정신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창업교육 노하우를 살려 민간중심 창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홍성군 연2%대 저금리 용자 지원

개인 5천만원·법인 1억원 이내 용자 지원·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
 홍성군이 군민들의 소득 향상과 국제화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의 저금리로 용자금을 지원한다.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용자지원금은 올해 총 3억원을 용자할 계획으로, 오는 2월 5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 1억원 이내이며, 연 2%의 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서 ▲농어업·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지원 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등 사업 ▲새로운 소득 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써 운영 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담보능력이 없는 등 결격사유가 있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소모품 등 1회성 물품 구입, 채무반제 목적을 위한 용자신청은 불가능하다. 내달 5일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 홍성군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며, 최종 확정된 용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를 통해 용자가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세마을팀(041-630-1451)에 문의할 수 있다.
 홍성=김정환기자

우체국쇼핑 설맞이 최대 30% 할인대잔치

우정사업본부 아산우체국(국장 조성욱)은 오는 2월 9일까지 우체국쇼핑 설맞이 할인대잔치를 열고 팔도복 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판매 하고 있다.
 명절 인기상품인 한우세트와 과일, 꽃감과 견과류, 해산물, 한과 등 설 명절에 제격인 우리 농·수·축산물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여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어, 한우세트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된다.
 우체국쇼핑은 1986년 농수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3,600여개 우체국의 우편물류망을 통하여 9,150종의 특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설맞이 쇼핑은 아산우체국(041-538-2003-4)과 전국 우체국,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및 모바일(우체국쇼핑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단국대병원-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과 진료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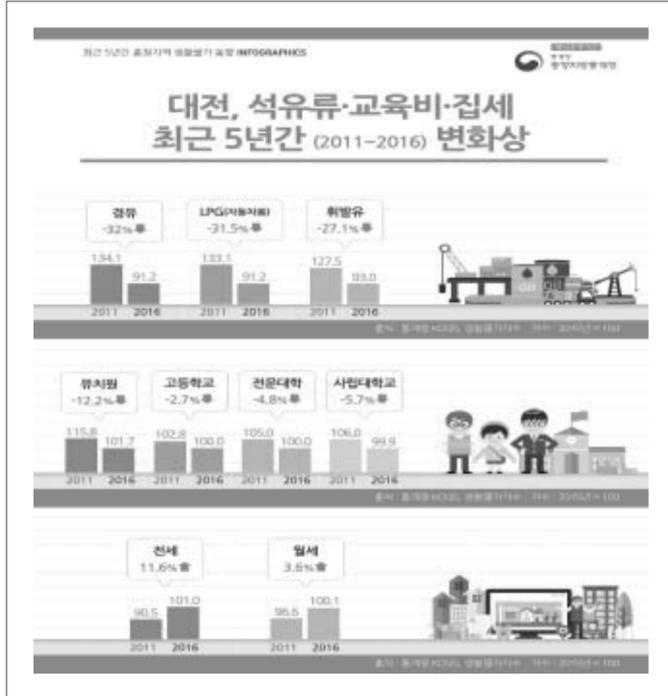
진천선수촌 위탁운영병원인 CM병원과 환자이송·진료체계 구축키로
 단국대병원(병원장 조종태)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협력병원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대한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오후 진천선수촌 행정동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이재근 선수촌장과 이호식 부촌장을 비롯해 조종태 단국대병원장, 진천선수촌 위탁운영병원인 이상훈 CM병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의료서비스 협약을 통해 단국대병원은 진천선수촌에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의료전송을 위한 닥터헬기를 통해 신속한 이송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CM병원과는 닥터헬기 출동 및 의료진 핫라인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 시 원활한 이송 및 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종태 단국대병원장은 "향후 진천선수촌 및 CM병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채기병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호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동구 유성대로 26-20 대우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공공민간 연계협력 '복지 청양'

제7기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위원 위촉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19일 지역사회보장의 민간 참여·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제7기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민주적 의사소통으로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날 위촉된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공공, 민간, 이용자 부문 총 14명으로 오는 2019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됐다.

위원들은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사회보장계획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이석화 군수는 "군의 각종 사회보장사업을 심의, 자문하는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청양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으로 위촉된 강미희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청양군의 복지문제를 발굴·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2018 세종시 신년음악회' 초청공연

대전시립교향악단, 세종시에 특별한 새해 인사



대전시립교향악단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청 여민실에서 '2018년 세종시 신년음악회' 초청공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이준희 세종시장과 세종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새해 대전과 세종의 상생협력 발전을 기원하고 양도시가 문화예술을 통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연에서 대전시립교향악단은 과거 유럽의 궁정에서 펼쳐졌던 형식인 현악앙상블과 함께 하는 연주로 '헨델의 합주 협주곡 작품6-6'을 시작으로,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을 빈스테 클라

리네티스트 협연과 비발디 플루트 협주곡 '붉은 방울새'를 김유미 플루티스트 협연, 그리고 홀스트의 현을 위한 성 바울 모음곡 등을 선보이며 세종시에 특별한 새해 인사를 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새로운 무술년을 맞아 대전시와 세종시가 함께 마련한 이번 연주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감성 선율로 세종시민에게 신년의 활기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문화시설 등이 부족한 세종시민들을 위해 공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태안군 아동들에 온정의 손길 펼쳐

성우중 도원이엔씨 대표이사, 희망의 무지개 지원사업 나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충남 아너 소사이터 클럽 대표인 성우중 (주)도원이엔씨 대표이사가 태안군 아동들에 '희망의 무지개 지원사업'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펼쳤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9일 태안군청에서 성우중 (주)도원이엔씨 대표.한상기 태안군수, 박은희 충남모금회 사무처장, 지역아동센터장 및 공동생활 가정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매년 충남 성인 최고 기부액을 경신하고 있는 성우중 아너 소사이터 회원은 충남지역 저소득 장애인 합동결혼식, 명절지원 그리고 장학재단을 통해 청소년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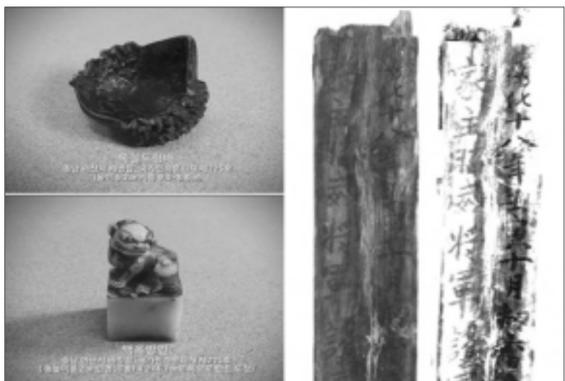
학금 지원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태안군 관내 5개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은 기능보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희망의 무지개 지원사업을 통해 태안군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하게 됐다. 성 대표는 "태안군의 미래는 청소년이고, 그 친구들에게 저의 조그마한 나눔을 통해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꾸준히 소의된 곳을 찾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송병배기자

맹고불 유물 '부여에서 아산으로'

6년 만에 돌아오는 국가민속문화재 제225호 전세맹고불유물



2011년 유물 보존처리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맹씨행단 유물전시관에서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이관됐던 국가민속문화재 제225호 전세맹고불유물(傳世孟古佛遺物)이 오는 24일, 다시 아산으로 돌아온다.

6년 만에 돌아오는 전세맹고불유물은 수장고와 향은·합습시설, 화재예방 시설 등이 갖춰진 고불맹사성기념관에 보관된다. 전세맹고

불유물은 고려말·조선초의 재상 맹사성 선생의 유품으로 전해진다. 옥적, 백옥방인, 채석포도문일월연, 수정죽접비녀, 목칠도형배 등 총 5점으로 지난 1990년 국가민속문화재 제225호로 지정됐다.

목적은 백옥으로 만든 황피리이며, 백옥방인은 손잡이에 사자가 앉아 있는 모양을 크게 새긴 옥으로 만든 도장이다. 채석포도문일월연은 자색을 띠는 비누로 포도덩굴, 원숭이 등 여러 문양을 새겨놓았다. 수정죽접비녀는 수정을 대나무처럼 묶어 비녀머리를 만들고 비녀몸통을 구리로 감아 만들었다. 목칠도형배는 표주박으로 해당화의 뿌리를 깎아 옷걸이를 하여 만든 휴대용 물잔이다.

이날 전세맹고불유물과 함께 2013년 고백 수리 당시 인수했던

장여 유물도 돌아온다. 장여는 도리틀 받치는 가로 보조재로 폭보다 길이가 긴 장방형의 단면 형태이다. 모양과 부위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장여에는 1482년 작성된 목서가 적혀 있어 1759년 작성된 대청 후측 중도리 목서와 함께 맹씨행단 고백의 연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득 문화관광과장은 "맹씨고불 맹사성 선생의 유품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참으로 기쁘다. 문화유산에 대한 아산시민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고 고불맹사성기념관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유물공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향후 유물의 상태 및 전시실 상황에 따라 전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2018 전자정부, 655억 투자 '지능형 정부' 본격 시동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핵심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정부'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은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869억 원) 중 75%가 넘는 655억 원을 '지능형 정부' 구축에 투자한다.

특히,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에 5개 과제 305억 원, 블록체인 기술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 계획 수립 과제 10억 원, 클라우드 환경 확산에 6개 과제 198억 원을 투입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범정부 전자정부 기반 조성, 다수 부처간 정

보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정부·국민·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정보화사업을 중점관리·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민원24, 조달청 나라장터 등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올해 사업추진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기술(IT)기업과 중앙부처 정보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지난 1월 18일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안이 올해 발주되는 일부 지원 사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설명회에서 지난 해 바뀐 발주제도와 함께 올해 바뀔 예정인 개선안을 중심으로 정보화사업 발주제도도 안내한다.

정운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주관기관은 사업 내용을 공유하여 우수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추진전략을 미리 세우는 등 주관기관과 기업 모두 상생(win-win)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백석대 '한·중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서 승승장구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창업보육센터는 1월 20일(토) 오전 8시 30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산둥대학교에서 중국 창업 동아리 4곳(산둥대학교, 하얼빈공업대학교 소속)과 웨이하이과학기술지원협회 주관한 '한중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2월 중국 웨이하이과학기술지원협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진행된 행사로, 백석대학교에서는 창업보육기업 3

곳, 창업동아리 8곳이 행사에 참가했다.

대상을 받은 백석대 창업보육기업은 비제이월드(주)로, '산모와 영유아가 함께 사용하는 전기매트'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기업에이프랜즈가 '치솔과 치약을 하나로 구성한 제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창업동아리 중에서는 '상상친구'(유아들의 상상 속 친구를 인형으로 제작, 판매)를 발표한 로망 팀

이 대상을, '특수통신방식'(군인, 소방관 등 특수업무 전용 통신방식)을 발표한 와이어컴팀이 우수상을, '운동량 측정제품'을 발표한 H팀이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웨이하이시 과학기술지원협회 왕도 회장은 "한국 기업과 학생들의 기량은 뛰어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서로 기술교류, 전시회 등 성과위주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자"고 말했다.

백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손동철 단장은 "한중 양국이 번갈아가며 경진대회를 개최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동남아 국가들까지 참여하는 대회로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도 행사에는 웨이하이시 국장급 간부, 참여 창업동아리의 대학총장, 천안시 웨이하이전시관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천안=제기명기자

건양사이버대, 2018 신입생·편입생 추가 모집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9일까지 추가 모집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원득)는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9일까지 '2018학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신입생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고교 내신이나 수능성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전문대 졸업자 및 4년제 대학 수료 또는 졸업자 또한 취득학점에 따라 2학년, 3학년 편입생으로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모든 전형절차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모바일로 지원할 수 있어 지원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전형방법은 전형자료작성(70점), 학업적성검사(30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전형을 실시한다. 수능점수나 학생부 점수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 없이 지원 가능하다.

모집학과는 ▲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보건의료복지학과) ▲휴먼학부(다문화한국어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영학과) ▲실용학부(글로벌비즈니스학과, 재난안전소방학과) 3개 학부 총 8개 학과다. 교육과정은 건양대학교와 협력할 실습 등을 진행함에 따라 사이버대학교의 미래 직업교육을 선도하는 실제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입시절차는 입학홈페이지(gokyu.ac.kr)에서 이뤄지며 입학원서제출, 전형자료 작성, 적성검사용 시간 하면 지원과정은 완료된다. 문의는 학교 입학지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899-3330) 또는 042-600-6589로 가능하다. 상담은 평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정복기자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학급, 졸업 및 수료식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은 19일 오전 10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된 영아학급에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영아 8명과 보호자 및 가족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졸업 및 수료식을 실시했다.

이번 졸업식은 올해 4회째 졸업 및 수료생들이 보호자들과 함께 입학해 축하를 받고, 교육지원을 받으면서 행복했던 시간을 영상으로 보며 성장한 영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졸업장 수여식 및 영아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상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교사의 도움을 받아 영아들이 부모님께 큰절을 하며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조원성 유초등교육과장은 "특수교육대상영아에게 있어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꿈을 응원하는 날이다"며 "학부모님과 특수교육대상영아 모두가 행복하고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대전동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든든한 받침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도빌딩 7층

소중한 생명 살린 하트세이버 수여

아산소방서, 1월 직장교육훈련... 인증서 및 배지 수여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은)는 지난 18일, 아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1월 직장교육훈련 시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구급대원 등 일반인 8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심장을 구한 사람만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를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도 병원 도착 전에 심정지를 회복하고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한 경우 수여되는 인증서이다.

이번에 하트세이버 배지를 받은 대원은 8명으로 현장대응단 소방장 장종훈, 소방교 김지수,

소방사 하인영, 소방사 이재원, 소방사 박정수, 방정119안전센터 소방사 오윤규, 인주119안전센터 소방사 조민철, 일반인 신기섭씨이며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 한 달 간 2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렸다.

이규선 아산소방서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소방대원들이 자랑스럽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트세이버를 수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분들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오비맥주, 임직원 자선 바자 수익금 지역아동센터 기부

오비맥주(대표 브루노 코네티노)는 봉사임직원 자선 바자를 통해 미려한 성금을 '성원미디어스쿨 지역아동센터(센터장 임종세)'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해 12월 오비맥주의 지원으로 완공된 서울특별시 성원미디어스쿨 지역아동센터의 '해피 라이브러리' 학습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전원자력연구원서 화재...“정확한 진상 조사”

시민단체 “관계기관의 정확한 진상 조사와 전면적 안전 점검 촉구”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20일 대전원자력연구원 화재 사건과 관련, "관계기관의 정확한 진상 조사와 전면적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1월 20일 저녁 8시 10분경에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화재가 났다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언론과 연구원 측에 의하면 2015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외벽 수도관에 동파 방지를 위해 감아 놓은 열선 과열로 인한 화재였다고 한다.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8시 44분경에 진압되었다고 한다. 만약의 경우 화재가 커졌다면 견딜 수 없는 재앙으로 변질 아찔한 상황이었다."면서 "우리가 이런 화재에도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원자력 연구원이 핵시설(사실상 핵발전소

이며 방폐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연구원이 보여 준 비리와 불법 행위, 불철저한 대응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는 "현재 연구원 안에는 하나로 원자로가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고, 3.3톤의 고준위핵폐기물,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중저준위핵폐기물 3만여 트럭, 핵재처리 실험을 위한 설비와 시설들이 즐비하다. 절반 이상은 내진 설계도 되어 있지 않고, 중저준위핵폐기물 드럼들은 창고에 그저 몇 층으로 쌓여 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채로 일기설기 위험을 쌓아 두고 방치한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도 엄청난 재앙으로 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탈핵을 선언한 현 정부 집권이 해를 넘겼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진 적폐를 그대로

둔 채 어떤 것도 혁신되지 않은 연구원에게 주민들은 더욱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대는 "경찰과 소방 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면 결과를 기다리겠지만 통상적인 조사로는 안된다. 이 사고는 더 큰 사고에 대한 예고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연구원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원인 규명이 필수적이다. 어떻게 화재가 나게 되었는지, 진압이 된 것은 맞는지, 방시능 유출은 없는지, 대응은 신속하고 적절했는지 날이 밝아야 한다. 또한 이번에 만약 화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경고와 대피 등 대우 업무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격렬한 반대와 논란을 일으키는 핵재처리실험은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무리한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역시 중단된 상황은 현재 원자력연구원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또는 단일한 상황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고하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 실험을 그치지 않는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사고로 모든 것이 파탄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유일한 교훈은 어리석은 핵재처리의 당장 중단뿐이다. 이 실험은 시급한 난제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의 전제적인 대응과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핵재처리실험은 절대로 추진되어선 안되는 위험하고 엄청난 화재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절대 시정하지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이번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는 연구원의 관철한 반대와 논란을 일으키는 핵재처리실험은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

대전시, 석면건강

피해자 구제 지원 나서

대전광역시시는 올해에도 석면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구제대상 석면질환은 원발성 악성종괴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으로,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구제급여는 석면질환에 관한의학적 소견과 관련서류(유족은 사망진단서 등)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관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 등급에 따라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받게 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135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최저 630만 원에서 최고 3800만 원까지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이영호기자



부여소방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소방안전교육 실시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19일 건강부여요양원을 방문하여 요양보호사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부여군내 사회복지시설은 33개소로 점차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주소방서, 공주산성시장 소방통로확보훈련 실시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지난 18일 공주산성시장에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통로확보(길터주기)훈련을 실시했다. 지역 내 화재취약지역인 전통시장 주변 상인들에게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노은3동새마을부녀회, 2018년 창립총회 개최
유성구새마을부녀회 산하 노은3동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노은3동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새마을지도자 15명을 위촉하고 신임 초대회장으로 오정민 지도자를 선출했다. 오정민 회장은 "새마을의 이념 구현·자조·협동을 더해 자원봉사가 생활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산불예방 이장단 명예순찰관’ 위촉

영인면, 불철 산불방지 및 산불 취약지 순찰구간 확립

아산시 영인면(면장 이정희)은 지난 18일, 불철 산불방지 및 산불 취약지 순찰구간 확립을 위해 영인면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및 이장단협의회장 김정목을 대상으로 불철산불예방 이장단 명예순찰관 위촉식을 가졌다.

면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영인면 이장 전체, 새마을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35인이 참석한 영인면의 산불 예방대책 강구와 산불 취약지 순찰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정희 면장은 "2018년을 맞아 영인면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 및 순찰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올해에도 산불 없는 영인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산=리량주기자

위풍당당 소방차 운전하는 여성소방관

서천소방서 소속 소방교 김태연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 소속 소방교 김태연(33세)은 2010년 소방 공채로 임용되어 2012년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을 취득해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해온 7년차 소방관이다.

교육홍보, 건축민원업무 등 내근부서에서도 근무했던 그녀는 현장근무에서 맹활약 중이다.

소방차 운전은 남성들의 영역이라는 오래된 인식에서 탈피, 여성소방관도 운전요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을 당당히 보여주고 있다. 15년 운전경력으로 남성 못지않은 운전 실력을 갖춘 그녀는 소방차 조작뿐만 아니라 정비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실무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서천=김태선기자

질병본부 “독감 진정국면 이지만 안심 못해”

증가하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 처음으로 감소

지난해 12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증가하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아직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발생이 높은 상황이라 안심하기엔 이르다. 보건당국은 손씻기·기침예절 같은 예방수칙을 지키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2018년 2주(1월7~13일) 69.0명으로 처음으로 줄었다.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지난해 12월1일(2017년 47주차) 7.7명으로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2017년 51주 53.6명, 2017년 52주 71.8명, 2018년 1주 72.1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2주(1월7~13일)에 69.0명으로 감소했다.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7~12세 93.6명, 13~18세 82.2명, 50~64세 55.6명, 65세 이상 30.4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0세는 48.5명, 1~6세 101.0명, 19~49세 83.1명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는 2018년 2주 13.85명으로 지난해 14.64명과 비교해 줄었다.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유형도 A형과 B형이 동시에 유행하는 추세가 유지됐다. 2017~2018절기(지난해 9월3일~올해 1월13일) 실험실감시 결과, B형이 516건(54.8%), A(H3N2)형 373건(39.7%), A(H1N1)pdm09형 52건(5.5%)이 각각 검출됐다.

국내 전문가들은 A형과 함께 3가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B형 인플루엔자 유행(아마가타계열)이 유행하지만, 이미 3가 백신접종을 받은

경우 4가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 3가 백신 접종 후에 4가 백신을 다시 접종하면 적절하면 병형 형성에 간섭을 일으키는 등 중반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문이다. 3가 백신은 한 번 접종으로 3종의 독감 바이러스를, 4가 백신은 4종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백신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입원율이 높은 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 등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 70~90%의 예방효과가 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복은 또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려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선기자



충남소방 최초 여성전문 구급대 운영

당진소방서, 여성소방공무원 3명 탑승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에서 충남소방 최초로 여성소방공무원 3명이 탑승한 전문 구급대가 운영되고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 소방장 김은실(운전), 소방교 김수연(구급), 소방사 황해민(구급이 주인공)으로 구성된 이들은 전문술기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한 당진소방서 최정애 구급대원으로서, 남자 대원들과 겨루어도 뒤처지지 않는 체력과 현장대응력을 갖추고 있다.

이 여성 소방관들로 구성된 전문 구급차량은 운전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구급차 운전 및 구급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당진 여성 구급대원 3명은 "앞으로도 당진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현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큰 포부를 내비쳤다. 당진=최근수기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위한 후원의 손길 이어져



모든 장애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해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김태권 고려정형외과 원장은 "평소에 장애아동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지인 분들 통해 열악한 소아재활환경과 장애아동 가족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토닥토닥과 협약을 통해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하게 되어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며 함께하게 된 취지를 전했다.

이 공연은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모두와 함께 행복하기 위해 준비한 2번째 콘서트로 대전의 뮤지션(실리그린, 이진일 밴드, 자판키커피츄, 블리츠)과 관람하는 관객분들, 공연을 위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모아야진 금액이다.

함께 준비한 뮤지션들과 기획팀은 "비록 엄청난 금액의 후원은 아닐지 몰라도 장애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 공연을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대전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관객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정복기자

칠갑산 얼음축제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청양소방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지난 19일 알프스마을에서 칠갑산 얼음축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대피방법과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전국적인 겨울 축제제로 부상하는 칠갑산 얼음축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화재 시 초기 대응요령 및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방

법 ▲심폐소생술 및 각종 응급처치법 교육 등을 실시했다.

최정순 구급대장은 "재난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며 "축제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직장인 47.4% “직장생활 중 총대 메웠다”

<벼룩시장 구인구직>직장인 113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총대를 메다’라는 관용구가 있다. 모두가 나서길 꺼리는 상황에 대표로 나서서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직장생활 중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할까?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최인영이 직장인 1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이 넘는 65%가 ‘절대 나서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은 가늘고 길게 하는 것이 최고’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직장생활 중 총대를 메는 행동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직장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50.4%는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33.1%는 ▲나는 나서지 않겠지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장에서 총대를 메는 것은 부모하더(9.7%), ▲불필요한 행동이다(6.9%)라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에서 총대를 메는 동료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상황을 봐서 적당히 도와준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도와준다(24.8%), ▲대세를 따른다

(14.6%)는 의견도 있었으며, ▲부수 일이 있어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1%로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꼽은 ‘총대를 메기에 가장 위험한 상황’은 언제일까? 응답자의 27.7%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총대를 메고 단독 행동하는 것을 꼽았다.

이어 ▲본인의 일도 아닌데 동료 선후배의 부추김에 얼떨결에 총대를 메는 것(22.8%), ▲회사에 대한 불평, 불만을 앞장서서 전달하고 맞서 싸우는 것(20.1%), ▲성공 확률이 보장되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15.9%), ▲민감한 사항을 대

표로 집행하거나 전달하는 것(13.6%) 순으로 이어졌다.

직장인의 47.4%는 직장생활 중 총대를 메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가 어땠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6.5%가 ▲도와주는 동료는 없었지만 성공했다고 답했으며, ▲동료들의 도움으로 성공했다는 답변도 33.5%로 높게 나타났다. ▲왜 나서서 일을 키우느냐는 편지만 들었다(20.5%), ▲동료들에게 외면 받고 회사에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낙인이 찍혔다(9.5%)는 답변도 있었다.

이정복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운동부 동계강화훈련장 격려 방문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은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관내 운동부 훈련장을 직접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공설운동장 및 관내 학교 등지에서 학생 운동선수들이 금년 5월에 개최되는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겨울방학동안 동계강화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운동부 선수 격려뿐만 아니라, 동계강화 훈련에 참여한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

계훈련비 예산 지원을 통하여 운동복 및 용품 지원, 전지훈련 비용 지원 등 아낌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문일규 교육장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자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운동에 매진하는 학생선수들이 매우 대견스럽다.”며,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산=김태선기자



시장애인복지관,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 계절학교 진행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7년 지난 8월 ~ 19일 2주기에 걸쳐 장애아동·청소년·성인 21명 대상으로 총 10회기에 걸쳐 겨울계절학교를 진행했다.



아산시, 초·중 코딩교육 위한 업무협약

사회적기업 (주)메이커스테크놀로지 협약 체결

아산시는 19일, 사회적기업인 ㈜메이커스테크놀로지(대표 조태연)와 관내 초·중학생 코딩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딩이란 C언어, 자바, 파이썬 등 컴퓨터 언어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이 컴퓨터의 사고절차를 배우도록 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래밍 방법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코딩교육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개정된 교과과정에 따라 올

해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코딩(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이 의무화되어 1년에 3시간 이상 코딩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 5·6학년에게도 연간 17시간의 코딩교육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아산시는 관내 초·중학생들의 코딩교육 지원을 위해 ㈜메이커스테크놀로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번 협약을 통해 ㈜메이커스테크놀로지는 매년 코딩교육을 무상으로 기부하며 올해는 5개 반 40시간을 기부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KAIST 미담장학회 ‘드림멘토링 캠프’

전국 초·중등학생 대상...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목적

KAIST 미담장학회(공동대표 송명)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KAIST에서 전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6회 드림멘토링 캠프를 개최했다.

아이엘스컴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캠프 참여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기존의 이론 및 원리 중심의 학습에

서 벗어나, KAIST 내 실험실 탐방 및 연구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론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 대해 직관적인 관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드론·RC-CAR 조립 등의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정상범기자

2018학년도 천안 평준화고 배정 발표

충남도교육청, 후기 평준화고 13개교에 4370명 배정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18학년도 천안 평준화지역 후기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천안의 30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배정통지서를 배부했으며, 천안의 30개 중학교, 천안교육지원청 또는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대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천안 평준화 후기고에 대한 배정은 지난 9월에 발표한 합격자 4370명을 성적과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한 지망순위에 따라 실시했다.

대상 학생 4370명 중 1지망 희망학교에 4008명 91.72%의 학생이, 3지망까지는 4144명 94.83%의 학생이 배정 받았으며, 9지망에서 모든 학생들의 배정이 완료됐다. 천안 후기고는 당초 모집인원이 4394

명으로 올해 24명이 미달했다.

배정학생 4370명에 대한 현황은 체육특기자, 지체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우선배정 9명, 읍·면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48명과 학생이 73명을 포함한 일반지원 4276명이다.

평준화고 13개 학교 중 1지망에서 배정이 완료된 학교는 8개교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키워줄 수 있는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특히 여학생들이 남녀공학학교를 작년보다 더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평준화지역에 배정받은 학생들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배정받은 고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하며 23일부터 25일까지 등록을 끝내고 3월에 배정받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태안교육지원청, 동계훈련장 격려 방문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은 지난 18일~19일 이틀간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강화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태안유도장과 경기체고에 방문했다.

이날 격려 방문은 방학 중 휴식이 속에서도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태안교육지원청 김형근 교육장을 비롯한 지원청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태안=김정환기자

대전 특수학교 설립 추진 본격화

지역사회 상생방안 모색 위해 주민간담회 등 의견수렴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대전 북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와 기존 특수학교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학교(가칭 행복학교)는 오는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대전 대덕구 용호동 55번지구 신관진용정초 용호분교 부지에 317억원을 들여 34학급 208명 규모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재정 확보와 중앙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지난 4월에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설립예산의 약 73%인 국비 232억 확보에 성공했다.

또한, 지난 12월 현재 설립 예정지(대덕구 용호동 55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특수학교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 교육청, 배움터·안전지킴이 배치

프라 확충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위해... 관내 125개



세종시 특별자치시 교육청(최교진 교육감,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125개 유·초·중·고등학교에 배움터·안전지킴이 169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배움터지킴이는 초·중·고등학교, 안전지킴이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게 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하고, 24학급을 초과하는 학

교의 경우 1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13개교 149명 대비 12개교(10.6%) 20명(13.4%)이 증가한 수치이며, 2015년과 비교할 경우 59개교(89.3%) 77명(83.6%)이 늘어난 수치이다.

배움터·안전지킴이는 오는 2월 중에 위촉하여 3월 개교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학생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 취약지역 순찰 활동 등을 수행한다.

유특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배움터·안전지킴이 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안전 점검 실시

천안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70교 대상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복)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관내 초등학교 70교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 및 현장 방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겨울방학 동안 소홀해

지기 쉬운 초등돌봄교실 안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돌봄서비스의 급간식 관리, 안전 지킴이 준수 여부, 사고발생시 대응 대책 수립 여부, 수요 조사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했으며 학교에서 겪는 문제점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관내 초등돌봄교실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의 내실화 있는 돌봄교실 운영 및 학교 도서관 개방을 통해 돌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급간식의 안전한 관리 및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직접 귀가지도, 안전귀가 일지 작성으로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천안=채기병기자



충남도교육청, 제9회 방과후학교 대상(大賞) 수상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제9회 방과후학교 대상에서 서산 팔봉중학교가 중학교로는 최초로 대상(大賞)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대상에서는 지난 8회 시상식까지 매년 초등학교가 대상을 수상했다.

● 특 정 ●

마을단위 민생현장 방문



김석환 홍성군 수= 22일 오전 10시 갑산면 대상 2018 마을단위 민생현장 방문 실시.

콘텐츠분야 해외박람회 참가사모집



충남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인수)은 충남도 기업홍상교류과와 함께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18 라이선싱 재팬과 10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2018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에 공동관으로 참가할 충남 콘텐츠 기업을 모집한다.

라이선싱 재팬은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의 콘텐츠 행사인 '콘텐츠 도쿄'의 핵심 박람회로 4월 4일부터 6일까지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다. 박람회 주최 측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269개사가 참여했고 약 4만명의 바이어가 방문했으며 충남 공동관 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이 참가했다.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 또한 중국 최대의 콘텐츠 박람회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린다. 2017년에 223개사가 참여했고 약 5만명의 바이어가 방문했다. 2018년에는 행사 면적을 키워 더 많은 기업들과 바이어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가지 박람회 모두 아시아의 거대 콘텐츠 소비국에서 열리기에 캐릭터, 애니메이션, 콘텐츠 솔루션 등 문화콘텐츠분야의 지역기업들에게는 판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성공적인 참가를 위해 우수한 지역기업 6개사를 선발하여 충남을 대표하여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진흥원의 대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 온라인 바이어 비즈매칭 서비스와 현지 사업설명회 참가 기회, KOIRA에 연계된 전문통역원과 남서울대 대학생 통역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1일(수)까지 충남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trade.kr)이나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cta.kr)에서 해당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김인수 원장은 "충남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역기업들이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쌀전업농 충남연합회장이 · 취임식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연합회 제 10·11대 회장단 이 · 취임식이 19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렸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날 이 · 취임식은 박병희 도 농정국장과 김광섭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장, 김병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은환 회장 임직식과 김인현 신임 회장 취임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현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쌀 전업농의 진목을 도모하고, 쌀 수급 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국장은 "쌀 산업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연합회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도의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 55개 1100km 걷는 길 종합관리 나선다

“탐방객에 보다 나은 걷는 길 환경 제공”

충남도가 도내 55개 1101.9km에 달하는 걷는 길에 대한 종합 관리에 본격 나선다.

개별적으로 조성돼 상호연계되지 않고, 중복투자와 사후관리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올해 사업은 15개 1098km의 걷는



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투입 예산은 5억 3200만 원이다.

사업 추진 방향은 △걷는 길 시·군 담당 부서 일원화 추진 △효율적·체계적 유지·보수를 통한 이용객 만족도 제고 △체형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잡았다.

또 △명품 길 지정 등을 통한 대표 걷는 길 육성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및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주변 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병 정비 등도 사업 추진 방향이다.

사업 대상은 충남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이 많은 길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최영규 도 산림녹지과장은 "현재까지 도내 걷는 길은 관리·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없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라며 "올해부터 걷는 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홍보를 통해 탐방객에게 보다 나은 걷는 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은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가치 있는 걷는 길 문화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목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걷는 길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걷는 길 이용·보전 실현 △걷는 길 지역사회 활력증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 등이다.

주요 과제는 △걷는 길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걷는 길 조성·관리 △자연·환경 실태 조사 △경관 관리 강화 △안내 서비스 확대 △이용자 안전 시스템 강화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예산체계 정비 등이다.

김정환 기자

세종어민락아카데미 특별강연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은 다음달 6일 김한민 영화감독을 초청해 2018 세종어민락아카데미 상반기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연은 '명량', '최종병기환' 등 역사영화를 통해 끊임없이 시대와 소통해 온 김한민 감독이 90분 동안 '영화와 시대정신'을 주제로 세종시민과 함께 시대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을 예정이다. 특히, 영화 '명량'은 누적 관객 1761만명으로 우리나라 최대관객수를 기록한 영화이기도 하다.

세종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강연회는 기존 수강생들의 영화 강좌 개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영화계 인사를 초청,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견에 귀 기울여 수요자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강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민 감독의 특별강연회 신청은 에스24(www.es24.com)를 통해 가능하며, 전석무료(예매수수료 1천원)로 진행 중이다.

한편, 세종어민락아카데미 정기 강좌 수강생 모집은 다음달 7일부터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인문, 지리, 국악, 서예, 문화예술교육기획 강좌 외에 클래식과 근현대미술 등 2개 신규 강좌를 신설해 총 7개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세종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044-850-0523)으로 하면 된다.

김정환 기자

홍성군 여성·아동 행복도시 조성 박차

홍북읍 아동통합지원센터 설치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정책 이어져

홍성군이 올해 보육아동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약 3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과 아동이 건강하고 편안한 행복도시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2018년 역점추진 사업으로는 홍북읍 아동통합지원센터 설치로 군은 내포신도시의 성장에 힘입어 홍북읍의 아동·청소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위한 복지 시설은 미흡하다는 점에서 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홍북 LH주공단지 내 근린시설에 위치할 예정인 아동통합지원센터는 현재 LH와 무상임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방과 후 돌봄센터, 청소년동아리방, 작은 도서관, 북서실과 가족카페 등 한 공간에서 육아부터 돌봄, 가족휴식 공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있을 통합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군의 방과 후 돌봄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고, 어린이집 보육 인력 2시간 연장 지원, 어린이 놀이문화 개선안을 수립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놀이 환경 보장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확대, 여성회관 위탁 및 여성교육 운영, 부모교육, 세대 공감 희망나눔기 사업 등이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 새 시대의 주역이 될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살기 좋은 홍성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경력단절여성 400명의 취업연계를 목표로 하고

홍성=김정환기자



윤봉길체육관 무료 놀이터 인기 만점

예산군,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부재로 육아가정 불편함 해소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윤봉길체육관 무료 놀이터가 육아가정으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아이들이 행복한 예산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윤봉길체육관 무료 놀이터를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체육시설 확충 등을 꼽았다. 같은 맥락상에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부재에 따른 육아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추가 사업을 통해 육아가정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 예정이다. 군은 관련부서 교육·체육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85%증액한 바 있다.

이번 무료 놀이터 개장은 군으로서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윤봉길체육관 무료 놀이터는 해피카·배틀링, 패밀리카, 에어바운스 6개, 키즈라이더 7개, 캐릭터 포토존, 트릭아트 등 인기있는 놀이시설들로 구성했다.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교 6학년 이하)으로 미취학 아동은 반드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는 입장은 가능하나 놀이기구 탑승이 제한된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로 휴무일 없이 운영된다.

또한 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응급상황실을 운영하며,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보

호자휴게실을 운영해 아이 부모의 편의도 고려했다.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18일(금) 개장 첫날 관내 어린이 집, 유치원에서 단체로 방문해 윤봉길체육관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다.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에어바운스 6개의 테마로 구성된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 놀았다.

군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실내 무료 놀이터를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고 실내 놀이터를 제공해 겨울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영범기자

세종시, 농업인자녀학자금·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경제적부담감소·삶의 질 향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학자금 지원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본인 및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영농관련 직업 및 기타 가사일을 대신해주는 도우미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병 정비 등도 사업 추진 방향이다.

사업 대상은 충남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이 많은 길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최영규 도 산림녹지과장은 "현재까지 도내 걷는 길은 관리·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없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라며 "올해부터 걷는 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홍보를 통해 탐방객에게 보다 나은 걷는 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은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가치 있는 걷는 길 문화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목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걷는 길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걷는 길 이용·보전 실현 △걷는 길 지역사회 활력증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 등이다.

주요 과제는 △걷는 길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걷는 길 조성·관리 △자연·환경 실태 조사 △경관 관리 강화 △안내 서비스 확대 △이용자 안전 시스템 강화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예산체계 정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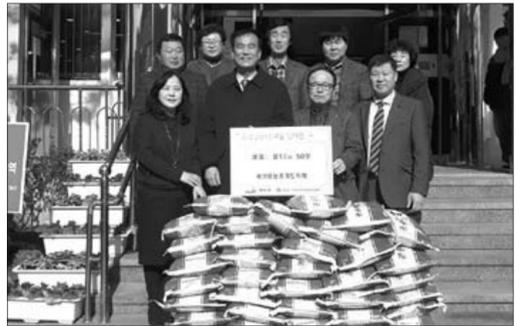
김정환 기자

지원한다. 학자금 신청은 2월 13일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규로 농업축산과장은 "사업에서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지원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와 세종시청 농업축산과(044-300-4315)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정환기자



예산읍농촌지도자회 이·취임식

취임축하회 대신 기탁받은 쌀 10kg 50포 전달

예산읍농촌지도자회는 지난 19일 예산농협신례원지점에서 예산읍농촌지도자회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예산읍장, 예산농협조합장 등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박호열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박호열 회장은 취임 축하회화 대신 기탁받

은 쌀 10kg 50포를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고 예산읍행정복지센터로 전달했다.

박호열 회장은 취임사에서 "농민들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고 예산읍농촌지도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산=양영범기자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신문기자단 우·다·다 개강식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류관욱)는 20일 신문기자단 우·다·다 청소년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강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센터 내 동아리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학교 '청소년 신문기자단 우·다·다우리는 다 다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개성과 창의적인 눈을 가지고 지역 청소년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의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시설 등을 취재하여 청소년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청소년 신문기자단 우·다·다'는 지난 2004년 청소년신문 창간호를 발행하고 지난 해 말 53호까지 발행했으며 올해로 15년째를 맞는다.

이날 선포 기자들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하여, '신문기자단 자기소개'와 '2018년 우·다·다 운영안내' 등으로 청소년 신문기자단의 포부를 밝혔다. 또한 청소년기자단의 가족성장프로그램으로 심리검사를 통한 가족이해, 즐거운 모래놀이 등이 진행되었다.

개강식에 참석했던 17기 신입기자 김○○은 "우·다·다 선배들의 환영을 받아 기쁘고,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기사를 쓰고 싶다. 또한 기사작성 외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학교 우·다·다는 매년 분기별로 청소년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올해는 3월, 6월, 9월, 11월에 발행 예정이다. 신문은 세종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각 학급 및 청소년 관련기관으로 배포된다.

세종=이정범기자

세종시보건소출산준비교실참가자모집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소장 이강산)는 임신부 대상인 '출산준비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임신부 출산준비교실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신 20주 이상의 산모를 대상으로 총 3기에 걸쳐 진행되며, 각 기수별 12주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임신부 체중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 ▲안전한 출산에 필요한 호흡 및 분만기전 교육 ▲모유수유 방법 및 육아 정보제공 등이다.

세종=김정환기자

우리/동/네

선제적 대응으로 봄 가뭄 피해 최소화

태안군, 사업비 16억 원 우선 확보 · 1분기 중 농업용수 확보 사업 추진

태안군이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밭 빠른 가뭄대책 추진에 나선다. 군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가뭄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해마다 물 부족으로 모내기 어려움 겪는 등 농민들의 피해가 반복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과 재원을 집중 투입, 선제적 가뭄대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밭개지구 배수개선 ▲소근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취입보 설치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6억 원을 우선 확보, 올해 1분기 중 봄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선제적 가뭄대처 사업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에도 총 60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준설(12개소), 저수지 확장 및 정비(1개소), 관정개



발(92공), 들샘개발(51개소), 양수저류설치(6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태안군은 간척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저수지 신설 등 중장기적 농업용수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민선6기 들어 중앙정부 보조금 예산과 군비 등을 투입

해 용수원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봄 가뭄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국·도비 및 예비비의 추가 확보에 앞장서고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은 예비 못자리 2만 4천 상자(73ha)를 생산·공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가뭄 발생 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영농단체별 영농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업인 및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한다는 각오다.

아울러, 각 읍·면에 배치된 양수장비를 점검해 가뭄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소규모 용수확보를 위해 하천 물막이가 필요한 지역을 사전 조사해 장비 지원에 나서는 등 차질 없는 가뭄 대비에 나설 계획이다.

태안=김정한기자



SNS로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했다

당진시, 다양한 콘텐츠 활용, 운영 만족도 높아

당진시가 다양한 SNS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을 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진시는 지난 8월 305명을 대상으로 당진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 카카오톡을 활용해 2017년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당진시의 소셜미디어 운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5점을 매긴 응답자와 4점을 준 응답자가 각각 151명으로 조사돼 전체 응답자의 94.4%가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줬으며, 전체 평균점수도 4.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콘텐츠와 콘셉트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좋다'는 의견이 전체의 50%를 차지한 가운데 '좋다'는 의견도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운영된 소셜미디어 콘텐츠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콘텐츠 3개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164명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웹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카드 뉴스(156명), 당찬 사람들(150명)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시가 SNS를 활용해 잡힌 분야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축제 홍보와 지역소식 전달, 지역 소식을 활용한 콘텐츠를 꼽은 응답자들이 많았다.

반면 개선할 사항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보다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더 많은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청양

넷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넷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 제공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4년째 특수시책으로 넷째이상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넷째 이상 아동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교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넷째이상 자녀의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1일 5시간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넷째미만의 자녀도 가정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에 따라 연 600시간까지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행복으로 다가오도록 자녀 출산 분기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외에도 하반기부터 만 5세까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양=정성범기자

영인면 복지이장 역량강화교육

아산시 영인면(면장 이정희)은 지난 18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인적안정망 강화를 위해 관내 33개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복지이장 역량교육을 실시했다.

2017년에도 마을별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주민들을 발굴하고 살림으로써 많은 활동을 한 복지이장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2018년에도 지역복지와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희 영인면장은 복지이장의 역할과 임무, 복지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복지이장들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정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항상 최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정목 영인면 이장협의회장은 "마을주민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관 협력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의 이웃이 없게 이장들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동정

요업무 보고회
북기왕 아산시장은 22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요업무 보고회에 참석.

연두순방

김홍장 당진시장은 22일 오전 10시 함덕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년 함덕읍 연두순방에 참석, 오후 3시 송악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2018년 송악읍 연두순방에 참석.

군민과의 대화

한상기 태안군수는 22일 오후 2시 안면읍사무소에서 '2018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

연두순방

이석화 청양군수는 22일 오후 2시 남양면 연두순방을 실시



음봉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

아산시 음봉면(면장 김희원)은 지난 18일, 음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복지이장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은 긴급한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어려움이 있는 가구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만 65세 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가구가 해당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의미, 대상자 발굴 시 맞춤형 복지팀에 알려주는 등 대처요령을 전달해 사례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방문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보호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희원 면장은 "복지이장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며 "올해도 변함없이 마을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이장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가져다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사회복지인 초청 토크 콘서트 열려

당진시 "민·관 협력으로 복지 이야기 꽃 피웠다"

당진시가 지난 19일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에서 민·관 복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의 복지정책을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한 '복지 이야기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최근 자원봉사센터 수탁과 복지재단 관련 공공부문의 불신을 종식하고 나아가 더 나은 복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과 함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협력에 위

한 '복지 이야기'를 주제로 사회복지기관 수탁과 특검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고용불안, 복지재단 종사자 채용개선에 대한 시의 대안이나 방향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당진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기원 교수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복지기관과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 당진시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위탁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토크콘서트를 계기로 앞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넘버원 청양' 널리 알려줄 넘버원 서포터 찾습니다

청양군, 내달 21일까지 제1기 SNS서포터즈 추가 모집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2월 21일까지 온라인상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는 '청양군 SNS 서포터즈'를 추가 모집한다.

쌍방향 소통의 참여형 소셜네트워크의 활성화 목적으로 기획된 청양군 SNS 서포터즈는 지난해 3월 처음 출범해 다양한 긍정소식과 축제, 관광, 맛 집 등의 정보를 제공 청양의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에 군은 현재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1기 인원을 추가 모집해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유용한 정보를 한층 더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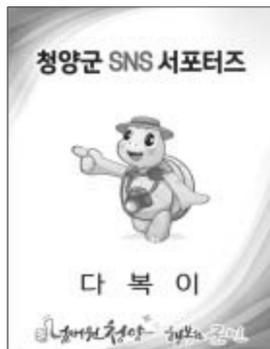
이번 추가모집 인원은 10명으로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SNS계정이 있고 청양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하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소통참여→군민제안방'에 올리거나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선발되는 서포터즈는 앞으로 1년간 청양군의 이슈나 관광·문화·행사 등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며, 군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활발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생활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얻고 있는 1인 1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생생한 정보를 잘 빠르게 전파해 청양군 알



림이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태안군 따뜻한 성금 행렬 이어져

태안군에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은 지역 단체 및 기업들의 성금 모금이 이어지고 있어 동장군을 녹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주도원이앤씨 대표 성우종은 지난 19일 군청 군수실에서 한상기 군수와 성우종 대표 및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기탁식을 갖고 성금 2,500만 원을 군에 기탁했다.

충남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3호 회원인

성우종 대표는 지난해 2월에도 (재)태안군사랑장학회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난 2006년부터 태안군에 장학금 및 성금을 꾸준히 기탁하며 지역발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성우종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날, 태안장로교회(목사 조영준)도 태안군청을 찾아 지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에 동참하고 싶



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정산면 새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청양군 정산면(면장 김성근)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신청자격은 만 5세~19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 및 범죄피해가정의 자녀

이며, 신청일의 익월부터 11월 30일까지 월 8만원씩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면은 대상 가정에 대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빠짐없이 해

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940-2225)나 정산면 사무소(940-4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기업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 공유

계룡시, 1공무원 4기업 소통전담관제...기업 찾아가 애로사항 청취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관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1명의 공무원이 관내 4개 기업을 전담하는 '1직원 4기업 소통전담관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까지 기업을 방문한다.

'기업소통 전담관제'는 공무원이 관내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업소통 전담관으로 지역 경제과 직원 12명 전원을 지정하고 개인별로 4개 업체를 방문, 올해 시행되는 중앙정부와 도, 시의 기업 지원 시책을 알리고 있다.

또 공무원과 기업 간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해 기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산업현장의 당면한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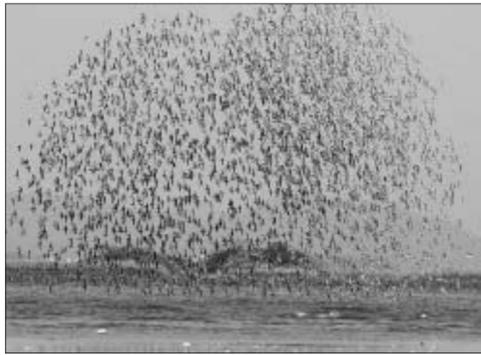
실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파악된 기업의 규제 및 애로사항은 계룡시 지역경제과장을 총괄로 하는 기업소통 전담관을 통해 자체 처리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까지 해당 전담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기업들의 반응 등 성과분석을

통해 전부서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 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업소통 전담관제는 기업 정보의 부족으로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정부정책, 도 추진 한계에 따른 관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유부도 갯벌 세계자연유산등재 박차

서천군, 철새 중요기착지,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역할

유부도는 금강하구의 작은 섬으로 서천군에 소재한 15개의 섬 중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있다. 지금은 어업과 염업 등 20가구의 삶의 터전인 유부도.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신청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이 조용한 섬마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부도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상에 위치하는 황해지역의 중요 거점지다. 도요물떼새 등의 철새들이 번식지인 북극지방에서 월동지인 호주로 이동하면서 황해지역은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난개발된 황해지역과 달리 유부도는 원시 자연이 보존돼 있기 때문에 많은 철새들이 찾고 있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Birdlife International 등이 유부도를 중요 거점지로 선정했다.

또한 유엔산하 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세계 8대 철새 생태관광지역이며 지난 2009년 랍사르 습지 보호지역에도 등재돼 보호되고 있다.

더불어 유부도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알려졌다. 전세계 생존개체 수 1%인 종이 9종 이상 서식하고 있다. 전 세계 200여 쌍만 생존하는 넓적부리도요, 생존 수가 2000여 마리인 청다리도요사촌뿐 아니라 IUCN 지정 멸종위기종인 붉은어깨도요, 알락꼬리마도요,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희귀 조류의 중요한 보금자리다.

지난 2013년 서천군은 문화재청, 충남·전남·전북도, 서천군·신안·고창·순천·보성 등과 함께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추진단을 설립하고 등재기준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2018년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최종신청대상으로 선정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서를 완성해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고 유네스코 자문기구로부터 현지실사를 받을 계획이다. 오는 2019년에 제43차 세계유산 위원회를 통해 등재 결정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유부도의 생태·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부도 공동체 유지 방안 등의 준비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단순히 지속가능한 보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국제적 탐조관광의 메카로써 기반이 되는 탐조대, 방문자센터, 선착장, 부정기선 운항 등 중장기 계획을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의 삶과 유부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유부도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토대로 생태관광벨트를 활성화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군은 배후도시인 송림2리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추진하며 신성리 갈매밭과 유부도 생태관광지역을 연결해 생태관광 활성화에 힘을 것이다.

국내 최초로 유무형 세계유산에 등재됨과 동시에 한산 모시짜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연계해 서천군 전역을 유네스코 도시로 브랜드화 할 것이다. 더하여 인근 백제역사지구와 같은 국내 세계유산지역과 연계해 유네스코 국제관광벨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 현장점검

성정시장·성환이화시장 소방안전 합동점검 진행

천안시 서북구가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서북소방서와 함께 지역내 2개 전통시장에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겨울철 화재예방 소방안전 현장 안전점검에서는 성정시장과 성환이화시장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법을 알리고 소방피난설비와 수신기 작동 등을 확인했다.

이는 추운 겨울에 접어들면서 제천 화재 참사와 같이 화재로 인한 대규모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 조치로 위협요인을 조기 차단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상인회에 통보 후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심상일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은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으로, 화재예방수칙 준수와 자율적인 정기 점검 등을 당부드린다"며,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장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채기병기자

천안시 건강한 아동 성장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등 민·관 서비스 연계 통해 운영 효율화



천안시는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전체 지역아동센터 62곳에 대해 예산 2억 2,300만 원을 투입하며, 각 센터마다 운영비를 매일 추가로 30만 원씩 지원해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교육, 놀이를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기능보강사업, 직원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후

원자 발굴을 통해 음악프로그램 '꿈꾸는 날이더'에 1,000만 원을 지원했다.

천안시 드림스타트는 후원자 발굴을 통해 예비초등학생 27명에게 책가방 3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부터 30개 읍·면·동 전체로 아동통합사례관리 사업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허브 기관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도시는 꾸준히 기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비로 센터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며,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한 정기 현장점검 등 수시 감독을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건강과일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역아동센터 아동 1,500여명에게 과일을 지원하며, 3년째 그룹홈 9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관 연계사업 1사·1그룹홈을 이어간다.

또한, 후원받은 300만 원으로 매월 생일이 돌아오는 조손가정 아동

60명에게 생일케이크와 선물을 각 가정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아동들이 미래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창의융합 페스티벌을 지원해 4차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어린이 전용시설인 '천안어린이회관'을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연장, 각종 체험 프로그램실, 전시실, 상담실, 어린이놀이터와 체육시설 등을 갖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시설로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연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민·관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겠다"며, "올해도 지역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동호기자

제16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체험프로그램 공모

'연꽃나라의 빛과 향' 등 꼭 봐야 할 5대 프로그램 준비



부여서동연꽃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부여군수 이용우)는 문화체육관광부 4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된 제16회 부여서동연꽃축제

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체험프로그램 제안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6회 부여서동연꽃축제

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정원인 궁남지 서동공원에서 7월6일~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며, 백제 무왕의 탄생 설화, 천만송이 연꽃, 그리고 다양한 경관조명을 임팩트 있게 설치하여 역사, 문화, 생태를 한꺼번에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꽃나라의 빛과 향', '7월의 겨울왕국', '사랑의 연약시', 'Lovely Bike' 체험, '아침 연꽃' 등 궁남지에서 '꼭 봐야 할 5대 프로그램'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올해 반드시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축제 최우수 축제로 승격시키려는 복안으로 연초부터 일차기 준비하고 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 공모분야로는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종류, 연(蓮)과 마(馬)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주제에 맞게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부여군 문화축제추진단을 방문하거나 우편(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1 부여군민회관 1층 문화축제추진단) 또는 E-mail(leegijong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공모안에 대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꽃 축제의 주제에 부합하는 체험, 체험의 참신함, 완성도, 체험비용의 적정성 검토 등 자체 심의를 거친 후 개별통보, 부여서동연꽃축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부여서동연꽃축제 체험프로그램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부여서동연꽃축제.kr), 부여군청 홈페이지(http://www.buye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서동연꽃축제추진위원회(041-830-2208)로 문의하면 된다.

합 프로그램 등으로 주제에 맞게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부여군 문화축제추진단을 방문하거나 우편(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41 부여군민회관 1층 문화축제추진단) 또는 E-mail(leegijong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공모안에 대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꽃 축제의 주제에 부합하는 체험, 체험의 참신함, 완성도, 체험비용의 적정성 검토 등 자체 심의를 거친 후 개별통보, 부여서동연꽃축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부여서동연꽃축제 체험프로그램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부여서동연꽃축제.kr), 부여군청 홈페이지(http://www.buye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서동연꽃축제추진위원회(041-830-2208)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시 제3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발대식 열려

서포터즈 개념 넘어 주인공으로서 제역할하는 방법은 '참여' 강조



논산시시장 황명선은 19일 회의실에서 소통 논산, 온라인 홍보 대사 역할을 담당할 제3기 논산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논산 알리기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은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모집을 통해 선발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활동 소개, 선사인밴드 및 딸기농장 견학·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서포터즈들은 한류문화를 접목한 병역대마포크인 선사인밴드를 방문해 논산의 저비용 고효율을 킬러 콘텐츠인 서마이발체험, VR체험 등 즐기고 1950년대 옛 시가지를 그대로 재현한 드라마촬영장소 등 이색적인 볼거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논산관광의 현수소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딸기농장을 방문해 딸기의 맛과 향을 흠뻑 즐길 수 있는 청정 논산딸기 수확체험을 하며 즐거운 추억도 함께 만들었다.

올해 3기를 맞는 논산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앞으로 1년간 논산의 다양한 관광 스토리텔링과 새로운 콘텐츠 발굴은 물론 생활 속 불편사항 제보까지 발로 뛰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활동하게 된다.

논산=김태선기자

특정

업무협약식



구본영 천안시장은 22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천안시와 아이튼트스아침소년과·우리튼트내과의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노박래 서천군수는 22일 오전 10시 기산면 동서천농협에서 열리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식량작물 및 고추반에 참석, 오전 11시 군수실에서 개최되는 한산모시소곡주연구소건립준강보고회에 참석, 오후 1시 문산면행복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촌여성반에 참석.

계룡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성실 납세자 추첨에 상품권 5만원 지급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오는 25일 오전 11시 시청 상환실에서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품추첨 행사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방세 성실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자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분 중 체납내역이 없고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의 무작위 추첨 기능을 이용해 성실 납세자 100명을 공정하게 추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 4명으로 구성된 경품 추첨위원회하에 경품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첨 결과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각 당첨자에게는 '계룡시상품권' 5만원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 세무회계과(042-840-276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계룡시는 올해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논산시 한글대학 강사와 공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9일 회의실에서 '2018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 개강에 앞서 한글대학 강사 109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同苦同樂)'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은 시대적 환경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해 배우는 즐거움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한글대학은 145개 마을 1,60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글 교사 59명이 주 2회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지난해보다 138개 마을이 늘어난 283개 마을, 2720명이 참가한다.

오리엔테이션은 한글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전달에 이어 선배강사 특강, 마을배정 및 유의사항 안내, 시장과의 대화 등 협력과 소통의 자리로 이뤄졌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한글대학은 단순히 한글을 깨우치는 게 목적이 아닌 어르신들께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과정"이라며, "어르신들이 평생교육은 물론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전파의 일선에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고 활동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소망이 모두 이뤄져 활기차고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동체 플랫폼 조성을 위한 건전한 마을 복원프로젝트 '동고동락(同苦同樂)'을 추진하고 있으며, ▲흠뻑어르신 공동체 생활제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대학 ▲마을 돌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리 ▲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시음약해 ▲동고동락문서트 등 따뜻한 행복공동체 복지도시 구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논산=김태선기자

동정

주간업무보고회의 주제



오시덕 공주시장은 22일 오전 8시 40분 중회의실에서 주간업무보고회의를 주재.

월간 현안 보고



김동일 보령시장은 22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월간 현안 보고, 오전 10시 20분 화양사에서 열리는 봉심례, 오전 11시 보령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04회 임시회 개회 참석, 오후 1시 청라면사무소에서 열리는 민생현장 방문.

운산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이완섭 서산시장은 22일 오전 10시 운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운산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오후 2시 5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수석동 새해 시민과 대화에 참석, 오후 5시 시장실에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에 임명장을 수여, 오후 6시 30분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산체육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금산군 주말행복 배움터 운영자 모집

금산군은 22일부터 31일까지 2018년도 지역사회 주말행복 배움터사업을 운영할 기관·단체·개인을 공개모집한다. 주말행복 배움터는 주5일 수업제도에 따라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주말 체험활동 및 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공모 지원대상은 지역 기관·단체·개인인 것으로, 학교 등 공공기관은 지원이 불가하다. 선정된 운영자는 1개 프로그램에 최대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29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단체소개서, 단체등록증, 관련 실적 증명자료를 준비해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운영자는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교육소외계층 지원방법, 프로그램의 특이성 등 평가지표에 따라 1차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자 중 금산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산시 체육 꿈나무 동계훈련 '구슬땀'

육상과 수영·축구·탁구·역도 등 5개 종목 86명의 선수들 전국 각지서 동계 전지 훈련 돌입

서산시 체육 꿈나무들이 겨울방학을 맞은 채 각종 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로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육상과 수영, 축구, 탁구, 역도 등 5개 종목 86명의 선수들이 전국 각지에서 동계 전지 훈련에 돌입했다. 지도자 3명과 선수 16명으로 구성된 육상팀은 지난 5일부터 전남 광양에서 동계 훈련을 시작했다. 이들은 제46회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 2연패를 목표로 다음달 19일까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벌인다. 지도자 2명과 선수 17명으로 구



성된 수영팀은 충남 논산의 충남체육관에서 기초체력 보강과 기량유지 훈련에 전념 중이다. 45명으로 구성된 축구팀은 지난

8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유소년 축구가 활성화된 경기 남양주에서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학동초의 탁구팀은 전남 광양에서, 전국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음양중 역도팀은 서천군 과노산 등에서 훈련 중이다. 이석봉 서산시 체육진흥과장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스포츠도시 서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견스럽다."며 "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열리는 각종 대회에서 지난해 못지않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2억 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각급 학교 등에 13명의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체육 꿈나무 육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보령시 해양수산분야 39개 사업 243억 원 투입

수산지원 확충 총력...내달 14일까지는내년도해양수산사업 접수

보령시는 자원 감소, 시장 개방, 해양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올해 해양수산 분야 39개 사업에 국비 99억 원 등 모두 243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수산의 미래 산업화 및 어촌 활력 도모, 수산 생태계 기반 확충, 연안지역 오염 예방, 어업 생산 증대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부자 농어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선망, 자망, 복합 어업을 하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감축신청을 받아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며,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도모 및 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6억 6100만 원을 투입 15척의 감축을 추진한다. 또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 어민들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시행하고, 소규모항

보수보강 2개소 4억 원, 대천항 수산물 위판장 시설현대화 33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천북굴단지, 87억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종로배양장 히트펌프 설치, 14억 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유해생물(숙) 구제사업 ▲연안 바다목장 조성(10억 원) ▲수산종묘매입 방류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 ▲가두리양식장 위생시설 및 약품 지원 ▲패류어장 자원조성 ▲해삼 서식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상해주는 어선어업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어업인(수협) 대상 역량강화 교육 지원, 낙도지역어업인 안전센터 조성(3개소)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달 14일까지는

2019년도 해양수산 분야 사업 지원 희망자를 모집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물 산지가 공시설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수산물 직매장 건립 ▲수산시장 시설 개선 ▲간이 냉동냉장시설 ▲적조피해예방 ▲해적생물 구제 등 24개 사업이며, 사업별로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의 비율이 다르다. 신청은 수산인, 수산관련 단체, 수협, 어촌계에서 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보령시청 수산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어업생산량 감소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 및 수산업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수산지원 확충과 함께 낚시어선 등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수산인의 의사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병행하는 등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 편의 증진·행정사무 적정처리 도모

서산시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3월 30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실시한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완벽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 신고자, 거주불능 장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망으로 의심되는 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별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각 세대를 방문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능등록 된 자는 적극적으로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우리/동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박차

금산군, 112억 원 투입... 주택개량 등 이미지 제고

금산군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농촌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금산군은 주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293동(9억 8000만 원), 주택지붕개량 350동(10억 원), 주택개량 120동(84억 원 용자), 빈집정비 100동(2억 원), 저소득층 집수리 93가구(6억 3000만 원) 등 총 112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등 석면이 함유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빈집을 철거하는 대상자를 동당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사업효과 극대화를 꾀하게 된다. 또한 금산군 특수시책으로 매년 10억 원을 투자하는 주택지붕개량사업은 동당 최고 35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60%가 지원되며, 빈집정비는 동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자가거주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별로 구분해 도배·장판 및 설비 등의 주택 보수 지원된다. 특히,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개량할 경우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축협을 통해 용자금 지원된다. 주거전문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5년간 감면의 세제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받으려면 오는 2월 20일 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 및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3월 중 최종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청회

옥룡동 버드나무골·은개골 일원 주거복지 실현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19일 고마 컨벤션홀에서 옥룡동 버드나무골·은개골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연수 창조도시과장의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요내용과 사업계획(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시민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지역 현안 및 해묵은 숙원사업을 행여준 공주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원형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85억원을 확보했으며, 2021년까지 4년 간 옥룡동 버드나무 1·2길 및 은개골 일원에 노후 옥룡동주민센터 이전, 노후 주거지 재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산성 은개골 정비사업과 연계한 테마가로 조성으로 세계유산을 품은 문화·관광 핵심도시로 육성해 도시재생 이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시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내달 초 국토교통부에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고문의 (042)538-3030

Modern Traditional Houses advertisement with images of houses and text in Korean. Includes contact info: BEST PLAN, 대표 박정호, FAX 042.624.1204, HP 010.7472.4972, pjn71456@hanmail.net

오늘의 하이라이트

▲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00분)



켄타(최철호는 스티브(신우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지금의 흐름을 쫓기 시작한다.

▲ 해피시스터즈 (SBS 오전 8시 30분)

진섭의 반항에 상처 받은 성림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그런 성립을 바라보던 혜정은 변화시킨 진섭의 모습에 속상해 한다.

케이블 영화

▲ 밀정 (OCN 오후 3시 00분)

<밀정>은 나라를 잃은 암울한 시대였으나 동시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역동적인 시대였던 이 중적 의미를 가진 1920년대 배경,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로 친일을 선택한 인물 '이정출'과 그가 작전 대상으로 삼게 된 항일 무장투쟁운동 단체의 열단의 새로운 리더 '김우진'을 큰 축으로, 이들 사이 펼쳐지는 임투와 회유 작전을 그린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인 출신 일본경찰이 정출(송강호)은 무장투쟁운동 단체 의열단의 뒤를 캐라는 특명으로 의열단의 리더 김우진(공유)에게 접근하고, 한 시대의 양 극단에서 있는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와 의도를 알면서도 속내를 감춘 채 가까워진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쌍방간에 새어나가고 누가 밀정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의열단은 일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할 폭탄을 경성으로 들여오기 위해, 그리고 일본 경찰은 그들을 쫓아 모두 상해에 모인다.

교란 작전이 숨겨진 게 펼쳐지는 긴장감속에서 폭탄을 실은 열차는 국경을 넘어 경성으로 향하는데...



과 달리 건강진 태도로 일관하는 화영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 그때, 예은이 할 말이 있다며 집안 식구들을 모두 불러모으고, 식구들은 예은의 중대발표를 숨죽여 기다리는데...

▲ 전생애 윈수들 (MBC 오후 7시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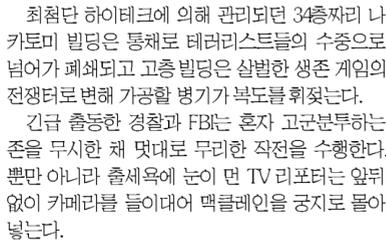
"그 집에서 투지금이 나올 수 없다면, 다른 거라도 받아야겠어요" 태평(한진희)이 투지금 때문에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된 고아네. 한편 나라(최수린)는 고아네에게서 다른 거라도 받아내겠다는 제약을 꾸미는데...

▲ 다이하드 (채널CGV 오후 7시 50분)

크리스마스 보내기 위해 아내와 자식이 있는 로스엔젤레스로 날아온 뉴욕 경찰 존 맥크레인(브루스 윌리스 분). 그가 아내 홀리(보니 헬리아)의 직장이 있는 나카토이 빌딩으로 찾아 갔을 때, 사무실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한창이다.

최첨단 하이테크에 의해 관리되면 34층짜리 나카토미 빌딩은 통째로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으로 넘어가 폐쇄되고 고층 빌딩은 살벌한 생존 게임의 전장터로 변해 가파른 병기가 복도를 휘젓는다.

긴급 출동한 경찰과 FBI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존을 무시한 채 막대로 무리한 작전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출세욕에 눈이 먼 TV 리포터는 앞뒤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어 맥크레인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program schedules for each channel.

아산무궁화, 아산우체국과 상호 교류협력 관한 협약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지난 18일, 아산우체국 대회의실에서 프로축구 최초로 우체국과 상호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해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고 우체국 택배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과 아산우체국은 상호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 아산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다량한 홍보마케팅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로 환원할 계획이다.

롯데갤러리 대전점, My Wonderful Dream 전시회



롯데갤러리 대전점에서 이서미 작가의 입체 판화 작품전 <My Wonderful Dream>을 개최한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관화과를 졸업하고 2001년의 첫 개인전 이후로 줄곧 평범한 일상의 기억들을 따스한 감성으로 그린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서미 작가의 작품은 일견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몽케구름 가득한 파란 하늘, 은하수로 반짝이는 밤하늘, 오색빛깔 무지개, 넘실거리는 바다 등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보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대전동대초 "지금 이 순간, 행복한 나를 찾아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행복한 내' 인성캠프 운영



대전동대초등학교(교장 김영화)는 1월 8일부터 3주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프로그램으로 본교 및 다양한 체험학습 장소에서 '행복한 내' 인성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습, 심리·정서, 문화·체험, 보건·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학생들의 행복교육 실현 및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런 캠프는 예술교과와 연계하여 첫째 주는 '행복놀이' 프로그램으로 공놀이를 통한 협동심 기르기, 둘째 주는 '행복나다' 프로그램으로 타악기 연주와 놀이 교육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함을 증대했다.

충남장애인체육회 '뉴 아이디어 공모' 사업 추진

현장의 목소리 반영할 수 있는 제안사업



충남장애인체육회(회장 안희정)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안사업인 '뉴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도 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신규 추진 사업으로 뉴 아이디어 공모사업, 장애인영양체육대회, 생활체육사업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뉴 아이디어 공모는 일반적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시군의 지형 및 문화적 특색이 가미된 '지역 특화 스포츠 사업'이나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한 순회지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업이다.

도 장애인체육회는 재능기부, 소외계층, 대학생봉사단, 프로구단 등과 연계한 사업 등 도내 시군지부 및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올해 2~3곳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케이블 & 위성방송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Table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like OCN, SBS, YTN, MBC, and Mnet.

광고문의 (042)538-3030



사랑의 사다리밴드, 헌혈 봉사 실천 사랑의 사다리 밴드(리더이정제)는 지난 19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원장 김용상)에서 혈액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이웃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헌혈봉사를 하였다.



대전제일라이온스클럽, 어르신 점심봉사 개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대전제일 라이온스클럽 (회장 정광자)은 지난 19일 탄방동 풍성한 정식에서 지역어르신 200여분을 초청한 가운데 물고기 점심봉사를 정성껏 대접하는 봉사를 펼쳤다.



대전대 CK-1 사업단 소속 학생들, 선진화된 지진 관련 안전교육 체험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국가안전방재전문인력양성사업단(CK-1 사업단) 소속 학생 30명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만의 방재과학교육관의 방문을 통해 해외 선진 안전방재 시설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청양읍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연시총회 개최 청양군청양읍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연명철, 성수현)는 지난 18일 청양읍사무소에서 연시총회 및 새마을부회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대전서구향군, 정기총회 및 제9대·제10대 회장 이·취임식 대전서구향군인회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탄방동 소재 더오페리웨딩홀에서 2018년도(제27차) 정기총회 및 제9대 조남준 회장·제10대 이상철 회장이·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전직 회장 및 내·외빈, 회원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대치면, 2018년 첫 직거래장터 개장 청양군대치면(면장 김종용)은 지난 19일 서울시양재천 공원에서 새해 첫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 이곳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지난 2016년 4월 개포4동과의 지매결연 후 활성화되어 단골고객을 확보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캡스톤 디자인 창업강좌’ 실시... 다양한 전공 융합교육 선보여 한밭대학교, 학생 스타트업 배출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2월 21일부터 1월 19일까지 ‘캡스톤 디자인 창업강좌’를 실시했으며, 수강생 중 전자·제어공학과 김운식 학생(3학년)이 실제 창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캡스톤디자인 창업강좌’는 한밭대 창업지원단(단장 송우용) 교수이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도전적인 마인드와 안목을 키우고, 실행역량을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공학 중심의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인 캡스톤 디자인을 창업과 접목하고, 경상-인문사회-디자인-공학계열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실천형 창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창업과정에 따른 창업기회발견, 창업준비, 창업실전 유형



등의 교육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PBL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운식 학생은 이 강좌를 수강하면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창업아이템인 ‘스마트팜에 활용하는 온실자동화시스템’의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등을 고도화했으며, 최근에는 사업자등록까지

의 비율이 “매우 그렇다” 77%, “그렇다” 23% 등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 ‘창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분야’로 사업계획 수립, 창업시장 조사 분석, 아이템 검증 및 사업성 판단, 아이템 개발(구체화, 전문화 등) 등을 꼽았다.

송우용 창업지원단장은 “학생들에게 창업관련 교과목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 창업에 강한 열의를 갖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일부 교과목만 배우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PBL 기반 학습을 통해 창업의 전반적 절차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적절한 부하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서천군기업인협회, 적십자 함께 어려운 이웃돕기 앞장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지난 18일 서천군청에서 열린 2018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서천군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사랑의 선물 세트는 10만 원 상당의 담요, 운동복, 내의 등의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등에서 온 서천군의 외국인 근로자 86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른충남기업 35호’로 가인한 서천군기업인협회장이자 천산인앤씨 장현기 대표에게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창기 회장이 바른기업 명패를 전달하는 명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장현기 대표는 지난 해 충청남도중소기업인연합회와 적십자 충남지사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기 위해 ‘바른충남기업’ 캠페인에 가입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장 대표는 “서천군의 기업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성범기자

서산새마을금고, 창립40주년 맞이

서산인재육성기금 천3백만원 기탁



서산새마을금고(김정환 이사장)가 올해로 창립40주년을 맞이해 서산인재육성재단에 천3백만원을 기탁했다.

김정환 이사장은 지난 18일 39차 정기총회에서 오는 3월로 금고설립 40년을 맞이했다며 회원들과 함께하는 큰 잔치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에서 제일가는

1등 마을금고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 까지 사랑을 아끼지 않은 회원과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산새마을금고는 애항심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까지 4천7백만원을 서산인재육성재단에 기탁해 오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주)현대스틸산업 천안공장 임직원들

소외된 이웃 돕기 모금 성금 기탁



천안시 성거읍 소재 (주)현대스틸산업 천안공장(공장장 심광택) 임직원들은 19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 750만 6,000원을 성거읍에 기탁했다.

(주)현대스틸산업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도 885만 2,000원을 기탁하는 등 매년 꾸준히 성거읍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천안=채기병기자

이번 전달된 후원금은 생활비와 난방비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3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호영 성거읍장은 “얼마 전 폭설로 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힘겨워했는데,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현대스틸산업 천안공장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성숙 금성백조 회장 제23대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은 23(화) 오전 10:30 ~ 11:00 금성백조주막 사옥 9층 (대전 서구 탄방동682 계룡로 583번길 9)

효인주야간노인복지센터, 안경맞춤 행사

다비치안경 가요동홈플러스앞점 인경 후원

효인주야간노인복지센터(대표 이사 이진숙)와 다비치안경 가요동홈플러스앞점(실장 윤수숙)에서 18일 안경맞춤 후원 행사를 가졌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노화로 시력저하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밀검진을 한 후 안경착용 및 교체를 해 드렸다. 효인주야간노인복지센터 이진

숙 대표는 “어르신들의 시력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안경착용과 시력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다비치안경 가요동홈플러스점 윤수숙 실장은 “어르신들의 시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건강과 시력지킴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대전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행정발전 유공자

2017 민원행정발전 유공자 선정 포상

대전광역시시는 시민과의 접점에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행정발전 유공자로 선정된 전화친절도 우수 공무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부서·공무원, 120콜센터 우수 상담사 등 10명에게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화친절도 부문에서는 본청 및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120콜센터 상담사가 맞이 단계에서 마무리 단계까지 전화 수신 신속성, 경청태도 등 평가를 통해 ‘진절 엮지적’으로 선정된 상수도사업본부 주무관 권태규 등 2명이 표창을 받았다. 유기찬 민원 신속처리과 고과

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부문에서 법정 처리기간 단축으로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등 3개 부서와 경제정책과 김성찬 주무관 등 3명이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대전 120콜센터 부문에서 대중교통, 여권, 차량등록 등 대전시정과 관련한 상담안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은희 상담사 등 2명이 영예를 안았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행정을 실현해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호기자

조폐공사, 제23대 조용만 사장 취임



조용만 사장 취임

지난 19일 취임한 신임 조용만(56, 사진)은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단순화폐 및 신분증 제조기업에서 결제와 인증, 보안을 아우르는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기술 개발을 통한 신규 사업화, 중소기업과의 신기술 공유, 사내 벤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공사는 물론 협력업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만 사장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재정전문가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송병배기자

알림

정성숙 금성백조 회장 제23대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은 23(화) 오전 10:30 ~ 11:00 금성백조주막 사옥 9층 (대전 서구 탄방동682 계룡로 583번길 9)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대투 논란



김현태 논설고문

비트코인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새해 들어 발행주체가 없는 돈, 즉 가상화폐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다. 실제 상황이 엄정하다. 이를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가상화폐는 이른바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비트코인(bitcoin)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로 단위는 BTC로 표시하고 있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 3일 프로그램 소스가 공개됐다고 한다. 여기에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라이크인, 에이코인, 대시, 모네로, 제트캐시, 랜덤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생겨났다. 비트코인은 여러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사기 경계해야

없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P2P(개인 대 개인)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보통 돈, 주식, 펀드 등 중앙에 관리하는 기구를 통해 구매, 판매하지만, 비트코인 이런 기구없이 사람들 간에 거래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트코인이 1BTC에 2,0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방침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요즘도 1,500만 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열풍이 결코 단순치 않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심지어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화폐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온·오프라인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수십만 원을 투자하여 수십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다. 광풍이 불고 있는 이유이다.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든지 실명화라든지 하는 정부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로 단위는 BTC로 표시하고 있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하여, 2009년 1월 3일 프로그램 소스가 공개됐다고 한다. 여기에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라이크인, 에이코인, 대시, 모네로, 제트캐시, 랜덤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생겨났다. 비트코인은 여러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은행이

연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뿌리가 너무 깊어진 것 같다. 그런데 이에 편승해 새로운 부자들이 파생하고 있어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비트코인 다단계 즉 금융피라미드 등 투자사기 수법이 교묘하게 가상화폐 시장에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서 무차별적이다. 더욱이 통제 불능으로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다단계의 종결 편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사기수법은 비트코인 몇 개 구매한 뒤 조용한 틈을 타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에 그럴싸하게 수익률과 함께 미끼를 던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다시 일파만파 퍼지도록 해서 관심 없던 일반인들까지 미끼를 물게 한다. 그리고 그 사이 비싼 값에 팔고 미끼꾼 사람들이 서로 이슈화 시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연쇄수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실제 현금화할 수 없는 가상화폐수만 갖고 피라미드식의 허부구조를 구성하는 투자사기 수법도 등장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허상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금융피라미드수법이다. 자칫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 이미 많은 피해자들도 발생했다. 위험천만한 투자사기가 이른바 비트코인이라는 이름하에 성행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사기수법에 속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규제하네 마네 하는 차원만이 아닌 것

같다. 이를 방지한 광범위한 투자사기, 이른바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사기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실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상당수 등장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쉽게 규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거래소 폐쇄나 거래 실명제니 뭐니 하면서 오락가락하지만 어떤 형태든지 정부의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 시장이 들이대는 통제적 변화가 과연 어느 정도 파급효과와 진정효과가 미칠지는 알 수가 없다. 엄청난 돈벌이 시장인 가상화폐 시장대책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인다. 실제 일확천금의 꿈을 이룬 젊은 층이 있으나가 많다. 요즘에는 암호를 풀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컴퓨터 그래픽카드조차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한다. 비트코인 일확천금, 노다지가 상대적 허탈감과 이질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유난히 거센 비트코인 광풍, 가상화폐 광풍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비트코인 광풍에 편승해 투자사기 수법이 독바섯처럼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대비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벌써 가상화폐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삐걱이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데스크 칼럼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또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 공동대표가 이전 선정과정에서 소송을 벌였던 업체 대표 가족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탈락업체들이 공정성과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하주실업의 공동대표는 지난해 2014년 1차공모 당시 롯데컨소시엄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전도시공사와 수년간 소송을 벌인 지산디엘씨 공동대표의 아들이다. 여기에 (주)하주실업은 지난해 6월 사업성 약화를 빌미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내팽개쳤던 롯데와 손잡고 이번 공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전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주)하주실업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첫 번째 의혹은 하주실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이다. 하주실업은 사업자 공모 직전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업실적도 없는데 무려 2760억원 규모의 공사를 떠낸 것이다. 물론 교보증권이 총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조달하는 재무투자자로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실패할 수 없는 대목이다. 두 번째 의혹은 하주실업의 배후에 롯데가 있다는 설이다. 지난해 6월 사업성 약화를 빌미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내팽개쳤던 롯데가 다시 참여하는 게 과연 기업윤리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의혹은 이번에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하주실업의 공동대표는 지난해 2014년 1차공모 당시 롯데 컨소시엄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전도시공사와 수년간 소송을 벌인 지산디엘씨 공동대표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년 간 대전도시공사와 법적소송을 한 지산디엘씨의 아들이 대표인 (주)하주실업이 이번 사업을 떠난 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껌잡직하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주)하주실업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 정상화 명분으로 참여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제시했다. 터미널 진입로는 당초 사업자 부담이었으나 공사비 100억원을 시민 혈세로 충당하고 견베를 용적률 상향 등도 이뤄졌다. 당장 대전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이번 유성복합터미널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은 지산디엘씨의 다른 이름인 하주실업과 롯데라는 두 기업에게 대전도시공사가 돌아간 것이거나 혹은 두 기업과 도시공사가 결탁해 대전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제는 의혹들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대전 시민은 오랜 시간 동안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왔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진입로 건설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해당 업체는 '추가 용적률에 사업부지 원가이하 공급'이라는 특혜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미 사업성 약화를 이유로 포기한 업체가 우선협상자의 배후로 지적되고, 특혜에 가까운 이익을 쟁겨 가는데도 대전도시공사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도시공사인지 모르겠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 하니 답답한 마음만 안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 선정 기업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영개발을 검토하라'며 대전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대전시 교통건설국 등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시민과 공직자를 우롱했다"며 공영개발 쪽으로 사업방향을 선화하라고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해당 유성구청장도 이날 대전도시공사를 긴급 방문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유영근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허 청장은 우선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롯데-지산-하주실업 관련 의혹으로 인해 주민들의 걱정과 실망이 매우 크다"면서, "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유성구 보건소 신속사업마저 지연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허 청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하주실업과 롯데 측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적 하자가 없다면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 절차를 이행해 더 이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측은 최근 이번 사안에 대한 해명을 내렸는데 이번 사업협상자 선정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태도만 취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사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연이은 의혹으로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사업시행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란이 지속되면 감독기관 감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공모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지난해 롯데와 사업협약 해지 이후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구성한 TF는 3차 공모 당시 제안서 제출 업체들에 대한 자격제한 문제를 검토해 바 있지만, 현행법상 제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의 공동대표가 도시공사와 소송전을 벌였던 기업과 연결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 행정과 정치권 결탁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사는 "대전시나 도시공사가 행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미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분명한 법적 이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앞으로 논란이 이어지면 지금까지의 절차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감독기관의 감사를 통해 발할 용의도 밝혔다. 해해벽두부터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대전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투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물론 대전도시공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간의 제기된 의혹들은 누가 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요구하는 평가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들 업체들이 소송전에 나선 경우 어렵게 재추진 제도에 올라선 유성터미널 문제가 또다시 법정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낙후된 대전 서남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상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매년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련의 상황들을 대전시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매년 공기업으로써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로만 내세우게 아니라 이번엔 사업성과로 답할 차례다.

칼럼

무술년에 거는 기대, 출산을 제고를 기대해본다



정학진

전,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현, 보건복지부 인구교육전문강사

오즈를 사회적 어려움과 경제적인 이유로 일상을 포기하는 게 무척 많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3포다, 5포다, 7포, 아니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N포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취업은 물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3포 세대란다. 결혼과 출산은 삶을 살면서 인생의 한 생애주기인 것이다. 생애주기를 포기한다는 것,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상황이 이쯤 되면 희망과 더 나아가 인생을 포기 한 것이

나 다를바 없다. 우리 인생살이 호락호락 한 것 하나 없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못 푸는 일이 없는 것 또한 인생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동행하고 함께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족이고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가기 때문이다. 취업을 하지 못하니 연애할 시간이 없고 이는 늦은 결혼으로 이어져 아예 결혼까지 포기하게 이룬다는 것이다. 또 우리의 전통결혼문화는 법에 의한 법률혼이니 결혼을 못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문화이다.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특히 늦게 결혼하는 만큼 역시 길어진 교육기간과 교육 후 취업이 어렵거나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파생한 이성을 만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여성의 초혼연령이 30을 넘어섰다는 보도는 우리사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초산연령이 30대 이후부터는 보건 의료적 관점에서 출산력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돌을 낳을 사람이 아이를 하나밖에 못 두니 출산율 역시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960

년대 6명에서 1980년대 2.8명, 2000년에는 1.4명에서 2005년에는 사상 최저인 1.08명을 기록했고 2016년에는 1.17명이다. OECD국가 중 최하위인 초저출산율을 기록하면서 80년대 이후 대체출산율인 2.1명을 지금까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가의 구성요소가 국민과 영토, 주권이다. 나라의 구성요소인 국민이 줄어든다니 뭘 말인가. 국회입법조사처 추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출산율이 하락 할 경우 120년 후인 2136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1000만명으로 줄어들고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09년 UN 미래보고서 역시 2700년 중국에 인구가 없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무서운 이야기이다. 이처럼 인구 문제는 국가를 물론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우선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기관은 물론 학교시설이 남아돌게 되고 교사가 직장을 잃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균형이 시작된다.

이런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정책의 사회구조적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생산성인구가 감소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로 저성장경제로 바뀌면서 사회보장부담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지속되면 노후생활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사회문제가 이쯤 되면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국부의 문제로 이어져 군인 갈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야구와 농구, 배구와 축구에서 용병을 보듯 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용병을 수입해서 남의 손에 나라를 지켜야 한다면 이해가겠는가? 우리나라의 국군의 열쇠를 남의 나라 사람에게 맡기는 격이다. 필자의 할아버지께서는 독신을 면하기 위해서 세 번 이사를 하셨다 한다. 필자 또한 손자를 돌보기 위해 명예퇴직까지 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가족의 번성을 위한 관심이고 활동이라 할 것이다. 가족의 번성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나라면 영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무술년 새해는 인구절벽의 골든타임으로 출산율제고를 기대해 본다.

유성구, 상반기 지역공동체 · 공공근로 일자리 참여자 모집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2018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등 7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등 7개의 공공근로사업

에 총 4억 8천 3백만 원이 투입되며, 상반기에 70명을 선발해 각 동 주민센터 및 유성구청 공공사업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시급 7,530원)으로 일 5시간 근무 시 간식비, 주·연차수당, 4대 보험료를 포함해 월평균 임금이 지난 해 대비 약 20%이상된다. 상반기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

개월간 추진되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교육 및 참여자 전원 건강검진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 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유성구민이다. 신청서 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

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추진단(☎611-2926)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일 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관 기자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 d-ma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요망.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8년 5월 17일 창간
 짧은생각 · 바른신문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인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인내 042)538-1602	광고신청인내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상담문의 041-736-7200
학교 조형물 리모델링(보수, 도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kidp

KIBO
벤처기업인증

All children are artists.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e he grows up, *Pablo Picasso*

더 큰 생각을 하다!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으로 넘치는 사제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공간 - 학교

학교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은 아이들의 생각을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실외공간으로 확대하여 자연공간과의 친화성을 높이고 미적 감수성, 창조성, 정서성을 배울 수 있으며 보다 넓게 인간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아실현과 협동 봉사 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조형물의 설치는 폭 넓은 생각과 시각적 재미를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학습의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작 품 명 상 상(특허등록)
작품크기 1200*550*1900
작품특징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더 큰 생각으로 미래를 열어가자는 작품

30년 전통의 조형물 전문회사
www.hd-space.com

학교조형물 리모델링
Artschool | LOVE
Environmental sculpture

국내 유일 학교조형물 전문회사 (주)현대공간조형이 사랑으로 만듭니다

- 30년 역사와 전통의 환경조형물 전문업체의 품격
- 새로운 공법, 특허 제작공법으로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
- 최고의 작가, 최고의 작품의 예술성이 높은 조형물
-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조형물

- | | | | |
|--------|------------------|-----------|------|
| 도원초등학교 | 북청사, 지암초, 한림 | 연봉초등학교 | 사제상 |
| 간암초등학교 | 거제대남 | 월랑초등학교 | 동상 |
| 도암초등학교 | 동진 | 속초삼다리 유자원 | 사제상 |
| 나래초등학교 | 사제상 | 석성초등학교 | 거제대남 |
| 석양초등학교 | 거제대남, 가학대남, 거제대남 | | |

조형물 / 조형미술 전문기업
(주)현대공간조형
조형물 전문상담
041.733.9558
www.hd-space.com